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정

#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정

# 인 준 서

김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만큼, 산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더불어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서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조종(祖宗)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숭앙되어 왔다. 백두산을 기행하고 쓴 백두산 기행기는 다른 유산기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18세기 이후에 주로 쓰여 졌다. 기행기는 문학작품이면서도 작가의 여행과정과 여행지의 지역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는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에 쓰여진 백두산 기행기인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이의철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종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를 중심으로 저자들의 특성과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백두산을 기행하게 된 이유와 백두산 및 경로 상의 경관이나 통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백두산 기행 양식과 기행로를 분석하고, 고지도 상에 기행로를 복원하며, 복원된 기행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 기행기는 17세기 후반 청나라와 국경문제가 제기되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분쟁의 초점이 되면서 18세기 이후에 주로 쓰여 지며,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하고 기행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 된 백두산 기행기는 그리 많지 않은데, 함경도의 험준한 산세와 추운 날씨로 인해 그러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백두산 기행기의 저자들은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우리나라 최

고의 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백두산은 평생 동안 꼭 한번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명의 백두산 기행자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 거쳐 가는 곳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자연경관에 대한 기록은 주로 고개·하천·산과 산맥 등에 대한 기록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입지·방어 등과 같은 인문경관에 대한 기록도 하였다.

셋째, 백두산 기행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때문에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유람을 목적으로 백두산을 오른 경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행 목적에 따라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지역 관원의 영접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동행인이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보다 많았다.

또한 기행 시 이용한 이동 수단은 두 경우 모두 말이나 가마를 이용하였고, 필요시 도보로 이동하였으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숙박 지점에 대한 기록은 두 경우 모두 숙박한 곳의 지명 정도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기행한 경우와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지역 관원의 영접’의 규모와 정도에 있어서는 업무상 기행한 경우가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에 비해 매우 컸다.

넷째, 기행기 속에 나타난 기행로를 고지도에 복원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 같은 경로로 함께 이동하였으며, 둘 다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김지남의 경우 1712년 6월 3일로 기록을 마치고 있었으나 박권의 경우 7월 13일까지의 기록을 더 하고 있어 귀환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사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지명을 상대방이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이들의 귀환로를 살펴보면, 김지남의 경우 돌아올 때의 기록이 없어 백두산으로 갈 때의 경로와 비교할 수 없으며, 박권의 귀환로는 갈 때

와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이 몇 곳 있지만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이들의 기행로는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 체계인 육대로 중 함경도로 연결되는 제 2대로인 경흥제2로와 거의 일치한다.

다음으로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는 모두 백두산에 오른다. 김경문·이의철·서명응은 함경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서 출발하며, 박종·이중하는 함경도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김경문·이의철·서명응의 경우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이 있으며, 박종과 이중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이 있다.

이의철과 박종의 경우 갈 때와 같은 경로로 돌아옴을 알 수 있고, 서명응과 이중하의 경우에는 같은 경로로 돌아왔으나 도착지점은 달랐다. 그러나 김경문의 경로를 살펴보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기행기에서 가는 도중에 기록된 지점에 비해 돌아올 때 거쳐 온 지점은 적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돌아오는 일정의 기록은 비교적 간단히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두산 기행기는 문학작품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여행 동기, 기행 양식, 여행 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경관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지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두산 기행기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최근 들어 ‘문학지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소개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4
II. 백두산의 명칭과 상징적 의미	11
1. 백두산 명칭의 역사적 변천	11
2.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	13
III. 18~19세기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 양식	17
1. 백두산 기행기 저술의 역사적 배경	17
2.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기 저자들의 특성	19
3.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과 경관에 대한 인식	29
1) 백두산에 대한 인식	29
2) 자연경관과 인문경관 묘사	33
4. 백두산 기행 양식	37
IV. 백두산 기행로의 복원과 그 특징	48
1.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로	48
2. 고지도에 복원한 백두산 기행로	54
3. 백두산 기행로의 비교 분석	66
V. 결론	81
참 고 문 헌	86
ABSTRACT	89

## 표 목 차

<표-1>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기 저자 .....	28
<표-2>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 .....	29
<표-3>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기행자들의 기행 양식 .....	40
<표-4>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기행자들의 기행 양식 .....	43
<표-5>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지역 관원의 영접 .....	44
<표-6>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지역 관원의 영접 ..	46
<표-7> 김지남의 백두산 기행로 .....	58
<표-8> 박권의 백두산 기행로 .....	61
<표-9>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백두산 기행로 .....	65
<표-10> 김지남·박권의 기행로 표시에 쓰인 기호 .....	66
<표-11>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기행로 표시에 쓰인 기호 ..	66
<표-12> 김지남·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	68
<표-13> 김지남·박권의 귀환로 .....	70
<표-14>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 경로 .....	73
<표-15> 경흥제2로(慶興第二路) .....	74
<표-16>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백두산 가는 경로 .....	76
<표-17>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귀환로 .....	78

## 그림 목 차

<그림-1> 김지남의 백두산 기행로 .....	57
<그림-2> 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	59
<그림-3> 박권의 귀환로 .....	60
<그림-4>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 나타난 김경문의 백두산 기행로 ..	62
<그림-5> 이의철의 백두산 기행로 .....	63
<그림-6> 서명응의 백두산 기행로 .....	63
<그림-7> 박종의 백두산 기행로 .....	64
<그림-8> 이중하의 백두산 기행로 .....	64
<그림-9> 김지남·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	67
<그림-10> 김지남·박권의 귀환로 .....	69
<그림-11>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백두산 가는 경로 .....	75
<그림-12>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귀환로 .....	77

# I.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만큼, 산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더불어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지는 옛부터 사람들의 삶의 바탕이었다. 사람들은 산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산을 포함한 땅을 삶의 원형적 존재로 파악하였다.<sup>1)</sup>

그 중에서도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조종(祖宗)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숭앙되어 왔다. 백두산에 대한 이러한 외경심은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17세기 후반 청나라와 국경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백두산은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분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며, 이러한 사건은 백두산을 구체적 실체로 인식하게 만든 내·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적 분위기 하에서 영토 분쟁과 국토의식 제고라는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백두산 기행기가 쓰여진다. 즉, 백두산 기행기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이다.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定界碑)를 세우거나 19세기 국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백두산을 답사했거나 간접적으로 답사 체험을 듣고 기행기를 남긴 것이다.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 박권(朴

---

1)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제83호, 진단학회, p.85.

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성지인 만큼 직접 답사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행기를 남기게 된 것이다.<sup>2)</sup> 박종(朴琮)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과 서명응(徐命膺)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의철(李宜哲)의 「백두산기(白頭山記)」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행기는 서문에 유람의 동기나 유람 목적, 동행인 등을 기술한 다음 날짜 별로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기록 하나하나가 사실이며 그 사실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행지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이나 기행하면서 그들이 느낀 감정까지도 알 수 있다.

백두산 기행기는 일기의 형식으로 쓰여 졌으나 그 일기의 낱낱을 독립시키면 그 나름대로 하나의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 즉, 낱낱의 기행수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의 여행관행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백두산 기행기는 문학작품이면서도 작가의 여행과정과 여행지의 지역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는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백두산 기행기를 통해서 기행기를 남긴 저자들의 특성과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백두산을 기행하게 된 이유와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기행로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백두산을 기행한 기행자들의 기행로 및 기행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2) 김영기, 2000, 백두산 문학의 영토, 지문사, p.77.

3) 정치영, 2003,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 15권 제3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18.

18~19세기에 저술된 기행기 7편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기행기는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권(朴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 이의철(李宜哲)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종(朴琮)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徐命膺)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이다. 이 7편의 기행기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에 수록된 번역문을 참고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백두산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백두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백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에 백두산 기행기가 제작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7편의 백두산 기행기와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특성 그리고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 및 경로 상의 경관이나 통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의 기행기에서 나타난 백두산 기행 양식을 문헌의 비교·고찰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각각의 기행기에서 백두산 기행로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행로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고지도에 기행로를 표시해, 각각의 기행로를 비교·분석하였다. 기행자들이 백두산을 기행했던 18세기~19세기와 현재는 지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때문에 고지도에 기행로를 복원하였다.

기행로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 고지도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이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로서 한국 고지도의 대명사이자 고전이며,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조선전도 중 가장 큰 지도로서 전체 크기 세로 6.6m 가로 4.2m의 대형지도이다. 현존본 중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이 보물 제 850호로, 서울 역사 박물관 소장본은 보물 제850-1호로 지정되어 있다.<sup>4)</sup>

4) 양보경, 2004, “과학과 예술의 만남 한국의 옛 지도 읽기 - 조선후기 조선전도의 발달과 《대동여지

《대동여지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소축적으로 줄여서 만든 것으로 축척은 약 1:92만 정도이다. 이 지도는 제작자와 발간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축약한 소형 전도이다.<sup>5)</sup>

때문에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전도》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그들의 백두산 기행로를 복원해 보았다. 지도에서 지명을 찾을 때 잘 찾아지지 않거나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명을 찾을 때 서울대학교 규장각<sup>6)</sup>의 고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행로를 시각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Adobe Photoshop 7.0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분 촬영한 대동여지도를 합성해 연결하고 축소하였으며,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전도》에 각각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백두산 기행로 복원은 백두산 기행자 개개인의 경로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그들의 경로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3. 선행연구

백두산을 한반도의 중심이자 출발점으로 인식한 산경표로 인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 인식 체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백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 이르는 우리 국토의 등뼈가 되는 대간이며, 백두산의 신성화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의 생태계 조사에 관한 논문으로 심규철·장남기·이현욱·강경미·소금현<sup>7)</sup>, 임양재·심재국<sup>8)</sup>, 김종홍·윤경원<sup>9)</sup>, 유형빈<sup>10)</sup>, 장남기·유해

---

도》”, 측량 제 72호, 대한측량협회, p.50.

5) 양보경, 2004, 전개논문, p.52.

6) <http://e-kyujanggak.snu.ac.kr>

7) 심규철·장남기·이현욱·강경미·소금현, 1998, “식물의 경계분포 이론과 백두산 삼림한계선의 파동

미·어은주<sup>11)</sup> 등 한국생태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있고, 한국식물분류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이우철<sup>12)</sup>, 김윤식<sup>13)</sup>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백두산 화산활동에 관한 논문으로는 소원주·윤성호<sup>14)</sup>, 윤성호·최종섭<sup>15)</sup>, 윤성호·이문원·원종관<sup>16)</sup> 등의 연구가 있다.

백두산 정계비와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한 논문으로 양태진<sup>17)</sup>, 이선근<sup>18)</sup>, 이상태<sup>19)</sup>, 강석화<sup>20)</sup>, 신영길<sup>21)</sup>, 이형석<sup>22)</sup>, 김영광<sup>23)</sup> 등의 연구가 있다.

그 밖에 서대석<sup>24)</sup>, 정재호<sup>25)</sup> 안창범<sup>26)</sup> 등의 백두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 
- 성”, 한국생태학회지, 제21권 5호, 한국생태학회, pp.491~499.
- 8) 임양재·심재국, 1998, “백두산의 식생대에 관하여”, 한국생태학회지, 제21권 5호, 한국생태학회, pp.501~518.
  - 9) 김종홍·윤경원, 1998, “백두산과 북한의 상록활엽수”, 한국생태학회지, 제21권 5호, 한국생태학회, pp.531~539.
  - 10) 유형빈, 1998, “백두산 천지 및 소천지의 동물플랑크톤”, 한국생태학회지, 제21권 5호, 한국생태학회, pp.565~573.
  - 11) 장남기·유해미·어은주, 1990, “한국에 있어서 백두산의 고산툰드라대와 고산과 아고산대의 고산툰드라 식물상의 비교”, 한국생태학회지, 제13권 3호, 한국생태학회, pp.237~245.
  - 12) 이우철, 1989, “백두산 식물상의 재검토”, 식물분류학회지, 제19권 4호, 한국식물분류학회, pp.241~248.
  - 13) 김윤식, 1989, “백두산의 자연”, 식물분류학회지, 제19권 4호, 한국식물분류학회, pp.303~321.
  - 14) 소원주·윤성호, 1999, “백두산 화산의 홀로세 대분화 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제20권 5호, 한국지구과학회, pp.534~543.
  - 15) 윤성호·최종섭, 1996,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의 역사 분출기록”, 한국지구과학회지, 제17권 5호, 한국지구과학회, pp.376~382.
  - 16) 윤성호, 이문원, 원종관, 1994, “동북아시아 일대의 신생대 화산활동에 관하여 ; 백두산을 중심으로”,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지구과학회, pp.24~25.
  - 17) 양태진, 1981, “백두산 천지를 위요한 한중국경선”, 한국학보, 제7권 1호, 일지사, pp.1095~1120.
  - 18)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 ; 회상되는 우리강역의 역사적 수난”, 역사학보, 제17권, 역사학회, pp.547~570.
  - 19) 이상태, 1996,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제7권, 무악실학회, pp.87~119.
  - 20)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朝) 청(淸) 정계와(定界)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제79권, 진단학회, pp.135~165.
  - 강석화, 1996,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 ;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제96권, 한국사연구회, pp.121~134.
  - 21) 신영길, 1995, “백두산 정계비”, 상서, 제13권, 한국장서학회, pp.13~220.
  - 22) 이형석, 1991, “천지분할과 백두산 정계비”, 북한, 제239호, 북한연구소, pp.86~95.
  - 23) 김영광, 1984, “민족사적 정통성과 백두산 영유권 선언”, 북한, 제152호, 북한연구소, pp.95~102.
  - 24) 서대석, 1991, “백두산과 민족신화”, 북한, 제229호, 북한연구소, pp.46~55.
  - 25) 정재호, 1991, “백두산의 민족사적 의미”, 북한, 제229호, 북한연구소, pp.36~45.
  - 26) 안창범, 1996,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동양사상의 발생”, 한국종교사연구, 제7권, 한국종교사학회, pp.265~294.

백두산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로는 김종범<sup>27)</sup>, 김주환<sup>28)</sup>, 유충걸<sup>29)</sup>, 양보경<sup>30)</sup>, 임한수·김선희<sup>31)</sup>, 이찬<sup>32)</sup>, 유용환<sup>33)</sup> 외에도 다수가 있다. 또한 백두대간에 대한 논문으로는 양보경<sup>34)</sup>의 여러 연구가 있으며, 그 외에도 박경<sup>35)</sup>, 권태호·최송현·유기준<sup>36)</sup>, 최영국<sup>37)</sup>, 김영표<sup>38)</sup>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된 백두산 기행에 관한 논문은 없으며, 지리산·금강산·청량산 기행에 관한 논문으로는 정치영의 논문이 있다.

정치영<sup>39)</sup>은 조선시대에 저술된 15편의 지리산유산기에서 당시 지리산지의 촌락 경관을 묘사한 부분들을 추출한 다음, 시기 및 지점 별로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당시의 유람은 숙박지 등의 문제로 인해 유사한 루트를 통해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주요 경유지가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 
- 27) 김종범, 1994, “백두산지구 제 4기 빙하기에 관하여”, 지리학연구, 제24권, 한국지리교육학회, pp. 117~123.
- 28) 김주환, 1991, “압록강 주변의 자연환경과 백두산의 지질·지형”, 북한, 제236호, 북한연구소, pp.38~45.  
김주환, 1992, “백두산의 지질과 지형”, 지리학연구, 제19권, 한국지리교육학회, pp.1~28.
- 29) 유충걸, 1994, “백두산의 지형특징과 분류체계”, 북한, 제273호, 북한연구소, pp.222~231.  
유충걸, 2001, “백두산 화산활동이 량강도 자연지리요소에 준 영향”, 추계학술대회, 대한지리학회, pp. 18~34.
- 30) 양보경, 1996, “조선시대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 ;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역사문 제연구소, pp.300~322.
- 31) 임한수·김선희, 1992, “백두산의 지리적 배경과 관광자원”, 관광지리학, 제2호, 한국관광연구학회, pp. 1~27.
- 32) 이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제152호, 북한연구소, pp.68~75.
- 33) 유용환, 2002, 민족상징 백두산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4)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韓國史市民講座, 제14집, 一潮閣, pp.70~97.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제83권, 진단학회, pp.85~106.  
양보경, 2001, “백두대간의 의의와 시적 상상력 ; 산경표와 백두대간”, 시안, 제13호, 시안사, pp.16~31.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산지관과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pp. 19~62.
- 35) 박경, 2005, “한반도의 산줄기와 지질에 관하여”, 산서, 제16호, 한국산서회, pp.102~106.
- 36) 권태호·최송현·유기준, 2002,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유역확장방식에 의한 접근’,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5권 4호, 한국지리정보학회, pp.106~118.
- 37) 최영국, 2001, “백두대간의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 국토, 제 235권, 국토연구원, pp.56~59.
- 38) 김영표, 2005, “다시 찾은 백두대산줄기”, 산서, 제16호, 한국산서회, pp.19~48.
- 39) 정치영, 2003, “‘遊山記’를 통한 조선시대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83~96.

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요 경유지에 대한 기록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촌락경관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당시의 촌락 경관을 복원하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정치영<sup>40)</sup>은 조선시대에 저술된 20편의 금강산유산기를 자료로, 당시 사대부들의 여행 동기를 밝히고, 여정을 복원하며, 그들의 여행관행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역된 작품을 중심으로 유산기를 모아, 저자 및 시대별로 분류한 후 유산기의 저자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저자에 대한 검토는 저자의 신분·거주지·사상적 배경·교유관계 등에 집중하여, 금강산 여행의 동기, 동반자와의 관계, 주요 방문지점과 여행 중 방문인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유산기의 내용분석에서는 여행 시기, 기간, 동반자, 경로, 숙박지, 교통수단, 주요 방문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당시 여행자들의 여행 행태를 분석하고, 시대별 여행 행태의 변화상과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여행 형태의 편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단계에서는 보다 면밀한 여정분석을 위하여 주요 여정과 방문지점 등을 도표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영<sup>41)</sup>은 조선시대에 저술된 총 20편의 ‘청량산유산기’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의 여행 동기를 파악하고 여정과 여행관행을 복원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금강산 여행과 비교해 청량산 여행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지에도 주목하였다.

국문학 분야에서도 백두산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백두산과 문학에 대한 연구로 이기철<sup>42)</sup>, 진태하<sup>43)</sup>가 있고, 백두산 기행시문

---

40) 정치영, 2003,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17~34.

41) 정치영,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54~70.

42) 이기철, 1999, “백두산의 심상과 시적 상상력”, 시안, 제5호, 시안사, pp.32~46.

이기철, 2000,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현대시에 나타난 「백두산」 Motif의 시적 상상력”, 한민족어문학, 제36집, 한민족어문학회, pp.179~201.

43) 진태하, 1990, “民族의 聖山으로서 白頭山考”, 人文科學研究論叢, 제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에 관한 연구로는 신민규<sup>44)</sup>, 김성재<sup>45)</sup>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백두산 기행기에 관한 연구는 ‘기행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진재교<sup>46)</sup>는 당대 현실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의 기행체험을 연구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문인들의 기행체험이 문학양식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백두산 기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행체험의 문학이 문학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진재교<sup>47)</sup>는 진택(震澤) 신광하(申光河)(1729~1796)가 백두산을 기행하면서 민족현실을 목도하고 형상화시킨 시편 「북유록(北游錄)」과 「백두록(白頭錄)」을 중심으로 진택의 인간적 면모에 대한 평가와 그의 시문학에 대한 한문학적 성과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김명희<sup>48)</sup>는 귀암(歸菴) 박권(朴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와 「서정별곡(西征別曲)」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북정일기(北征日記)」는 박권이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러 가면서 쓴 여행문학이며, 「서정별곡(西征別曲)」을 지은 것은 일기로 못 다 표현한 서정을 가사체로 빌어 쓴 것이라고 보았다. 「북정일기(北征日記)」도 사신으로서의 긴장감과 여정, 객수가 잘 묘사되었고 역사적인 사건도 짚어가면서 쓴 일기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 내용 고찰을 하였다.

---

pp.13~35.

진태하, 1991,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백두산”, 북한, 제229호, 북한연구소, pp.56~63.

44) 신민규, 2004, 조선후기 백두산 기행시문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김성재, 1997, 진택 신광하의 기행시 연구 ; 금강산과 백두산 기행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46) 진재교, 2000, “한국문학과 한문학 ; 18세기 백두산과 그 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26권, 한국한문학회, pp.115~154.

47) 진재교, 1990, “진택 (震澤) 신광하의 (申光河) 「북유록 (北游錄)」과 「백두록 (白頭錄)」 ‘기행시를 (紀行詩) 통해 표출된 민족정서’”, 한국한문학연구, 제13권, 한국한문학회. pp.211~248.

48) 김명희, 1996, “歸菴 朴權의 「西征別曲」과 「北征日記」考究”,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pp.319~366.

임치균<sup>49)</sup>은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조선시대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과 정계비 건립에 따른 반응을 검토하기 위해 「숙종실록(肅宗實錄)」을 살펴보고,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기행문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당시의 사대부 계층이 가지고 있는 백두산과 정계비 건립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추출하고, 이를 박종(朴宗, 1735~1793)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에 나타난 정계비와 백두산에 대한 의식과 대비하며,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성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의 등장 동기 및 등장 일정도 제시하였으며, 정계비 건립 당시에 백두산을 기행하고 쓴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백두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백두산 기행기’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국문학 분야로, 「북정일기(北征日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문학 분야에서는 기행기의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논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작가의 사상이나 기행기의 문학적 특성, 문학사적 의미 등을 주로 논하였다. 때문에 기행기가 ‘기행자의 상세하고도 사실적인 여행과정의 기록’이라는 점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도 역시 백두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8~19세기 백두산 기행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 백두산 기행기인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이의철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종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를

49) 임치균, 1996, “「白頭山遊錄」 연구”,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pp.405~426.

중심으로 18~19세기 기행기의 역사적 배경과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 양식과 기행로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행로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복원을 위해 고지도 상에 기행로를 복원하며, 기행로를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 II. 백두산의 명칭과 상징적 의미

### 1. 백두산 명칭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 함경 남·북도와 중국의 길림성이 접하는 국경에 걸쳐 있는 백두산의 위치<sup>50)</sup>는 북위 41°31'에서 42°28'까지, 동경 127°9'에서 128°55'까지 차지한다. 백두산의 총 면적은 8,000여 km<sup>2</sup>로 전라북도의 총면적과 비슷하다. 백두산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본인들의 측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2,744m로 기록하여 왔으나, 근래 중국 측의 측정에 의하면 최고봉의 높이가 2,749m 60cm로서 종래보다 5m 60cm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백두산은 만주와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그 산세가 웅장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또한 우리 한민족의 발상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산으로서만이 아니라, 전 민족이 신앙처럼 숭상하는 성산(聖山)이다.<sup>51)</sup>

백두산의 명칭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다. 문헌에 의하면 백두산의 처음 명칭은 불함산(不咸山)이다. 곧 진(秦)·한(漢)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산해경(山海經)』이라는 책의 『대황북경(大荒北經)』 조(條)에 “大荒之中有山, 名曰不咸, 有肅慎氏之國”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불함’에 대하여 최남선 선생은 ‘붉은’의 역음으로 보고 그 뜻은 천주(天主)인 신명(神明)으로 보았다.

백두산을 한대(漢代)에는 ‘단단대령(單單大嶺)’이라고 부른 바 있고, 남북조의 위(魏) 시대에는 ‘개마대산(蓋馬大山)’이라 하였다. 또는 ‘도태산(徒太山)’, ‘태백산(太白山)’이라 불렀다.

50) 북한은 1949년 평안북도 북동부와 함경남도 일부를 통합하여 ‘자강도’로, 1954년 함경남도 북부, 함경북도 일부, 자강도 일부 통합하여 ‘양강도’라 하였다. 따라서 백두산은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양강도(량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길림성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51) 진태하, 1990, 전계논문, p.13.

당나라 때에는 ‘태백산(太白山)’이라 불렀으며, 금나라 때에 이르러 ‘장백산(長白山)’이라 불렀다.<sup>52)</sup>

우리나라에서는 태고(太古)에는 삼신(三神)이 있다고 하여 삼신산(三神山), 『제왕운기(帝王韻紀)』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조나 발해,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기사에 ‘태백산(太伯山)’, 대백산이라 했는데 모두 오늘날의 백두산을 말하는 것이다.<sup>53)</sup> 또한 『고려사(高麗史)』의 광종 10년(959)때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居之”<sup>54)</sup> 즉,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쫓아내어 백두산 바깥쪽에서 살도록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sup>55)</sup> ‘백두산’이라는 명칭은 이때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조선에서는 환하고 맑은 산이라 하여 ‘한맑산’이라고도 하였고 또 ‘태백산’·‘장백산’이라고도 불리다가 그 후 ‘백두산’이라고 하였다.<sup>56)</sup>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백두산의 명칭은 ‘불함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단단대령’, ‘개마대산’, ‘도태산’, ‘태백산’, ‘백산’, ‘장백산’, ‘태백산’, ‘백두산’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한대 이후 불리어진 명칭의 공통점은 白 즉 희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白을 굳이 ‘북’의 차음(借音)으로 보고 있으나, 백두산의 모습으로 보아, 그대로 白자 자체의 뜻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두산 산정은 거의 사계절 동안 백설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산정에는 백색의 부석(浮石)으로 덮여있어, 눈이 아니더라도 희게 보이는데서 그 이름을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

52) 진태하, 1990, 전개논문, p.18.

53) 양태진, 1989, 韓國 邊境史 研究, 서울, 범경출판사, pp.22~25.

54) 진태하, 1990, 전개논문, p.13.

55)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p.135.

56) 유용환, 2002, 민족상징 백두산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57) 진태하, 1990, 전개논문, p.18.

## 2.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

상고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영토는 유구한 역사의 변천과 함께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도록 영역의 확충이 다양하였으며 백두산은 단군신화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등 우리 민족의 역대 강역으로 한때는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한때는 공유지로서 변방지역이기도 했고, 북방민족과의 접경지역이기도 했다.<sup>58)</sup>

이러한 백두산은 일찍이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한민족의 발상지로 또 개국의 터전으로 숭배되어 왔다. 그리고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길고 긴 역사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민족의 ‘조종산(祖宗山)’이라 일컬었고, 백두산은 민족정신의 근원으로 상징되어 왔다.<sup>59)</sup>

백두산은 고대부터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숭앙되었으나, 일차 사료로 인정되는 관찬 사료에 백두산의 신령함이 서술된 것은 『고려사(高麗史)』의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 설화라 할 수 있다.<sup>60)</sup>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본격적으로 숭배화한 것도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부터라 생각된다. 『고려사(高麗史)』 高麗世系에는 왕건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sup>61)</sup>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옛날에 虎景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터이다. 그 때에 桐裏山 祖師 道誥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 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鶴嶺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땅의 지맥은 북방[壬方]인 백두산으로부터 水와 木이 근간이 되어[水母木幹] 내

58) 유용환, 2002, 전개논문, p.16.

59) 심혜숙, 2004, 백두산, 대원사, p.14.

60) 양보경, 2001, 전개논문, p.22.

61) 양보경, 2002, 전개논문, pp.31~32.

려 와서 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水命이니 마땅히 水의 大數를 좇아서 집을 六六으로 지어 36칸으로 하면, 천지의 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태조의 아버지 호경이 백두산을 둘러보고 개성에 와 정착하였으며, 도선(道詵)의 조언에 의하여 백두산에 이어지는 개성의 땅의 기를 받아 왕건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왕건이라는 인물의 위대함과 비범함을 풍수에 가탁한 것이며, 이러한 비유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백두산을 신성한 산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백두산이 우리 국토의 생명력의 원천이며,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국가의 심장인 수도 명당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다.<sup>62)</sup>

고려시대까지 백두산은 우리의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진족의 거주 지역이었다. 백두산은 15세기 초에 적극적인 북진정책과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경 문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국경 문제에 관한 한 백두산 보다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더욱 중요한 경계의 지표가 되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4대조인 이안사(李安社) 때부터 당시 여진족의 땅이었던 두만강 유역에서 거주하였다. 이성계는 조상의 옛 터인 동북지방을 중요시하였으며, 건국 후 바로 길주의 국경 한계를 두만강 하류 공주까지 연장시키고, 그곳에 성을 쌓고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를 설치하였다. 거주지를 잃어버린 여진족의 습격으로 여진족과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세종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확고한 자연지형을 국경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700여년 이상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한 세종은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그러

---

62) 양보경, 2001, 전계논문, pp.22~23.

나 여진족은 그 후에도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한 원병 등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은 세력을 강화하여 1616년(광해군 8)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추장 奴兒哈赤가 심양(瀋陽)에 후금(後金)을 세우고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1627년과 1636년에 조선을 침공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개칭하였다.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들 조상의 발상지의 성역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1677년에 청나라 성조(聖祖)는 장백산(長白山)이 청나라 조종발상(祖宗發祥)의 땅이라 하여 가서 살피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sup>63)</sup>

이처럼 여진의 뿌리 지역이며 동시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백두산을 중심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라는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국경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백두산은 국경 분쟁의 초점이 되었다. 백두산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현실적 측면으로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어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1712년(숙종 38)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또한 1761년(영조 37) 예조판서 한익모(韓翼暮)의 건의로,<sup>64)</sup> 1767년(영조 43)에 함경도 갑산부 80리 지점 운총보(雲寵堡) 북쪽 망덕평(望德坪)에 장소를 골라 각을 세우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sup>65)</sup> 백두산 치제는 국가의 조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였음은 물론, 왕실과 왕권, 함경도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66)</sup>

---

63) 劉鳳榮, 1972,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第13號, p.79 (양보경, 2002, 전게서, p.34, 재인용)

64) 『英祖實錄』 권97 英祖37년 1월 庚午 (양보경, 2002, 전게서, p.34, 재인용)

65) 『英祖實錄』 권109 英祖43년 7월 庚子 (양보경, 2002, 전게서, p.34, 재인용)

이후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영토, 정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인문·경제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백두산이라는 산에 대한 점적인 대상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조선 후기에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 전체, 그 지역의 주민과 주민들의 삶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sup>67)</sup>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연적 상징이기도 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대동수경(大東水經)』에서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祖宗)이다.”<sup>68)</sup>라고 기록하였다. “홍세태의 백두산 기문에 이르기를 백두산은 북방 모든 산의 조종(祖宗)이다. 청조(淸朝)의 선조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북쪽 국경에서 300여리 쯤 되는 곳이다. 저들은 장백산이라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두 나라가 산 위에서 갈라진 두 강으로 경계를 삼는다.”<sup>69)</sup>는 백두산에 대한 관념은 조선 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백두산에 대한 숭앙심과 백두산의 영역적 의미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이러한 백두산 중심의 산천 체계는 자연적인 지세로 볼 때에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산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머리에는 항상 흰 눈을 덮고, 그 정상에 호수까지 있어 더욱 신비감을 주었을 터이다. 이런 면에서 백두산 중심의 산천인식은 인문적이라기보다 자연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 민간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또한 가시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지형적 측면이 작용한 우리 민족이 가진 원형적 사고의 하나이며,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시대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지속된 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66) 양보경, 2002, 전계서, pp.32~34.

67) 양보경, 2001, 전계논문, pp.23~24.

68) 『大東水經』, 其一, 涑水一 (양보경, 2002, 전계서, p.30, 재인용)

69) 『萬機要覽』 軍政篇 5, 白頭山定界, 洪世泰白頭山記 (양보경, 2002, 전계서, p.30, 재인용)

70) 양보경, 2002, 전계서, pp.27~28.

### Ⅲ. 18~19세기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 양식

#### 1. 백두산 기행기 저술의 역사적 배경

백두산 기행기가 창작된 데에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청(淸)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때문이다. 이에 18세기 백두산정계비(定界碑)를 세우거나 19세기 국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백두산을 답사했거나 간접적으로 답사 체험을 듣고 기행기를 남긴 것이다.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 박권(朴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이중하(李重夏)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가 그것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성지인 만큼 직접 답사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행기를 남기게 된 것이다. 박종(朴琮)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徐命膺)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의철(李宜哲)의 「백두산기(白頭山記)」가 그것이다. 이들은 백두산 자체가 신화적·역사적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선험적 존재라고도 인식했었다. 신화적, 역사적, 선험적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백두산으로 갔다.

김지남(金指南), 홍세태(洪世泰), 박권(朴權), 이의철(李宜哲), 박종(朴琮), 서명응(徐命膺)의 백두산 기행기는 조선 시대 숙종(1674~1720), 영조(1725~1776)때 쓰여 졌다. 또한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서 청국 측 대표 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심사하기 위해 백두산을 직접 답사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를 남겼다.

한문(漢文)으로 쓰여진 이들 백두산 기행기는 국토를 사랑하고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국토애와 자연의식을 담고 있다.

백두산이 민족의 관념 속에 깊이 터를 잡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의 구체적 인 경계로 인식된 것은 조선조 초기이다. 그러다가 국토의 뿌리라는 관념과 상징성은 18세기에 이르면 현실적인 담론(談論)으로 제기된다.<sup>71)</sup>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만주족(滿洲族)의 청나라는 백두산을 만주족의 발상지로, 성지로 치부하고 있었다. 청나라는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백두산 영유권을 행사하려는 저의를 주저 없이 드러냈다.<sup>72)</sup> 1712년에 있었던 청(淸)과의 정계비 사건은 백두산을 구체적 실체로 인식하게 만든 내·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18세기에는 북방지역의 영유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경영문제의 중심에 ‘백두산’이 놓이면서 ‘백두산’은 내·외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던 것이다.<sup>73)</sup> 울릉도와 독도 문제로 동쪽에서 국토의식을 북돋웠던 사건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 설치는 북쪽에서 국토의식을 다시금 북돋게 했다.<sup>74)</sup> 이러한 현실적 분위기 하에서 일부 문인들은 백두산을 직접 기행하고, 그 기행체험을 산수유기(山水遊記)로 혹은 한시(漢詩)로 표현했다.

이러한 기행기는 서문에는 유람의 동기나 유람 목적, 동행인 등을 기술한 다음 날짜 별로 유람을 하면서 전문한 것을 기록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기록 하나하나가 사실이며 그 사실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행지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이나 기행하면서 그들이 느낀 감정까지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에도 국토산수의 기행체험을 다양한 문학양식으로 표출한 것이 적지 않지만, 당대 현실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의 기행 체험을 문학으로 표출한 것은 18세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sup>75)</sup> 따라서 백두산 기행기들은 영토 분쟁과 국토의식 제고라는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근거

71) 진재교, 2000, 전개논문, p.116.

72) 김영기, 2000, 백두산 문학의 영토, 지문사, p.77.

73) 진재교, 2000, 전개논문, p.116.

74) 김영기, 2000, 전개서, p.77.

75) 진재교, 2000, 전개논문, p.116.

로 해서 쓰여 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백두산 기행기는 일기의 형식으로 쓰여 졌으나 그 일기의 낱말을 독립시키면 그 나름대로 하나의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 즉, 낱말의 기행수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의 여행관행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백두산 기행기는 문학작품이면서도 작가의 여행과정과 여행지의 지역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는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76)</sup>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백두산 기행기를 통해서 기행기를 남긴 저자들의 특성과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백두산을 기행하게 된 이유와 백두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기행로 등을 복원해 보는 것은 가능하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기 저자들의 특성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 된 백두산 기행기는 많지 않다. 함경도의 험준한 산세와 추운 날씨로 인해 그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7편의 백두산 기행기 중에 「북정일기(北征日記)」와 「북정록(北征錄)」은 백두산 정계비 설치와 관련하여 당시 청나라와의 회담에 대표로 참여하였던 박권(朴權)과 수석통역관의 일을 수행한 김지남(金指南)의 기행기이며,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는 김지남의 아들이자 통역관으로 정계비 설치 시 참여한 김경문의 기행에 관하여 홍세태가 쓴 기행문이다. 그 이후 50년이 지나서 백두산을 유람한 이의철(李宜哲)·박종(朴琮)·서명응(徐命膺)이 「백두산기(白頭山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를 남겼으며, 이중하(李重夏)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는 1885년 8월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이중하의 기록이다.

---

76) 정치영, 2003, 전계논문, p.18.

이상 7편의 백두산 기행기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은 1712년(숙종 38)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 문제 때문에 청의 차사(差使)로 온 목극등과 조선 측의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사이의 일을 통역한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쓴 일기이다. 이 일기는 현전 백두산 기행기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된 작품이다. 「북정록(北征錄)」은 1책 204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책의 원본은 1944년 11월까지 저자의 8대손인 김세목(金世穆)이 보관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다만 필사본만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등사한 것이다.<sup>77)</sup>

1712년 2월 24일부터 기록이 시작되며 2월 29일 출발하면서부터의 여정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매일의 날씨와 이동 거리, 이동 중의 상황과 목극등과의 대화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문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또한 출발 전 임금과의 대화와 접반사·문위사·함경 감사가 가져갈 예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청나라와의 국경 조사 경위와 정계비를 세우고 조선과 청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역관의 관점에서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와 양국 간의 관계, 사회상 등을 이해하기에도 충분히 유용한 자료라고 파악된다.

김지남은 너무 늙었다 하여 백두산에 오르지 못한다. 5월 8일 곤장우(棍杖隅, 백두산과 허항령으로 갈라지는 곳)에서 백두산 가는 일행(총관일행)과 허항령 가는 일행(시위·접반사 일행)으로 나뉘어 간다. 이때 김지남의 아들인 김경문은 백두산 가는 일행과 함께 이동한다. 그리하여 총관 목극등은 11일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15일에 비를 세워 경계를 확정한다. 5월 21일 다시 총관 일행을 만나게 되고 6월 2일 건원보(乾原堡)에 도착, 6월 3일 접반사가 김지남 자신의 수고를 칭찬한 내용을 실음으로써 모든 기록을 마친

77)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다.

두 번째, 귀암(歸庵) 박권(朴權, 1658~1715)의 「북정일기(北征日記)」이다. 이는 1712년(숙종 38)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조선 측의 접반사였던 박권의 일기이다. 1책 55장으로 필사본이며 원본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등사한 것이 현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소장번호B6B-127).<sup>78)</sup>

「북정일기(北征日記)」는 박권이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파견된 청나라 사신인 목극등의 접반사로 임명되어 그 임무 수행을 마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즉 접반사로 임명된 3월 17일부터 7월 13일 양문(梁文)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에서 3월 21일자 기록을 보면 ‘접반사 박권 대감이 뒤늦게 원주에서 명을 받아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3월 24일 아침 ‘접반사 박권을 따라 대궐에 가서 하직하고 백두산으로 출발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이 171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김지남이 2월 24일 평안도로 가라는 명을 받고 2월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3월 1일 중화부에 도착하지만, 3월 초6일 평안도가 아닌 함경도에서 목극등을 맞으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3월 24일 대궐에 가서 하직하고, 3월 25일 동대문 밖 의막(「북정일기」에서는 동교(東郊))에서 다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역시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에서 3월 24일 임금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그날 동교(東郊)에서 묵고 25일 새벽에 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권의 경우 김지남의 기록에 비해 매우 간단한 기록만을 하고 있으며, 국경문제와 정계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지 않다. 당시 조선의 접반사 박권은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의 일방적인 조치로 국경이 정해진 탓이라고 여겨진다.

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김지남의 기록이 6월 3일 청나라 사신과의 헤어짐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끝내고 있는 반면, 박권은 그 이후 7월 13일 양문(梁文)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도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6월 3일 이후의 기록이 더욱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조선 측의 접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일기이지만, 나라의 경계에 관한 문제 보다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의 거쳐 온 곳의 경치와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들른 금강산의 절경에 대한 내용이 더욱 상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행기의 뒤에 임금께 올리는 장계를 통해 국경 연변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과 생계가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와 백성에 대한 그의 근심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창랑(滄浪)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의 「백두산기(白頭山記)」이다. 「백두산기(白頭山記)」는 1712년(숙종 38)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여행일기이다. 이 일기는 홍세태가 백두산을 기행하고 쓴 일기가 아니라, 정계비를 세울 당시 역관으로 참여했던 김경문(金慶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일을 홍세태가 대신 기록한 글이다. 홍세태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백두산기(白頭山記)」는 홍세태(洪世泰)의 14권 7책으로 구성된 시문집인 《유하집(柳下集)》 권9에 수록되어 있다.<sup>79)</sup>

1712년(숙종 38) 청나라 사신인 목극등이 조선과 청의 경계문제로 파견되었을 때, 조선은 박권을 접반사로 하여 청나라의 관원들과 함께 경계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목극등은 접반사 박권과 함경 감사 이선부를 늑었다는 이유로 백두산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수석 통역관 김지남 역시 늑었다는 이유로 백두산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김지남의 아들인 역관 김경문은 목극등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간다.

이 일기의 내용은 1712년 4월 29일 삼수(三水)의 연연(蓮淵)에서 김경문이 목극등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후 백두산에 오르기까지의 힘든 여정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을 자세하게 쓰고 있으며, 경유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또한 백두산으로 오르는 당시의 상황과 대화들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5월 11일의 기록에서는 백두산의 정상에 도달하여 목극등이 분수령을 찾아 사람 인(人) 자처럼 생긴 지형 가운데 정계비를 세우기로 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2일의 기록에서 15일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내용까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백두산기(白頭山記)」 역시 백두산 정계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네 번째, 문암(文庵) 이의철(李宜哲, 1703~1778)의 「백두산기(白頭山記)」이다. 이의철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727년(영조 3)에 진사가 된 뒤 장릉참봉(長陵參奉)과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 등을 지내다가, 1748년(영조 24)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檢閱)이 되었다. 1752년 지평(持平)과 대사간을 거쳐 승지로 취임한다.<sup>80)</sup>

「백두산기(白頭山記)」는 이의철이 갑산 부사로 재임할 당시인 1751년(영조 27) 백두산을 유람하고 돌아와 남긴 기행기다. 이의철은 1751년 5월 24일 갑산에서 출발한다. 그는 백두산으로 향하기 4~5일 전에 먼저 색리(色吏)와 운총(雲籠)·혜산(惠山)·별사(別社) 세 고을의 백성 약 100명을 선발대로 보내어 길을 닦고, 점심 먹고 잠잘 곳에 임시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출발하였다. 또한 그는 가마를 타고 이동하였고 가마를 타지 못하는 곳은 말을 타고 이동하여 다시 가마로 옮겨 타기도 하였다. 5월 28일에는 청나라 사람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운 곳에 도착하였으며 정계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날 백두산 천지에 오른다.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백두산의 일곱 봉우리의 모습을 쓰고 있고, 백두산은 깨끗한 기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큰 산들 가운데 최고라고 예찬하고 있다. 그는 윤5월 3일 운총진과 동인진을 거쳐 갑산에 도착함으로써 열흘간의

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여정이 끝을 맺게 된다. 그는 이전에 백두산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이번 행차처럼 편안하게 사고 없이 다녀온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사히 백두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백두산을 유람하기 전 백성들을 무리하게 동원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였으며, 훗날 백두산을 유람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당주(鎭洲) 박종(朴琮, 1735~1793)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이다. 백두산유록은 조선 후기 함경도 경성의 유학자 박종이 쓴 백두산 기행기로 저자의 문집인 《당주집(鎭洲集)》 권14 유록(遊錄)에 실려 있다.<sup>81)</sup>

그는 당시 가난한 선비였으므로 백두산을 오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경성부사 겸 북병사였던 신상권(申尙權)이 무산부사(茂山府使)와 함께 백두산을 등정할 계획이 있었는데, 박종의 동행을 허락하여 박종은 이들과 함께 백두산을 등반하게 된다.

박종은 1764년 5월 14일에 출발하여 비촌(碑村), 주촌(酒村)을 지나 경성(鏡城) 성내에서 머무르고 다음날 경성에서 백두산을 향해 출발한다. 그리하여 5월 23일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곳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접반사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가 정계비 설치 시 목극등과 같이 백두산에 오르지 않고 삼수(三水)에 머무르고 있어 국경을 잘못 정하여 두만강 안쪽 700리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우고 난 후에, “소국에 인물이 없어 좋은 땅을 많이 잃었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과 현지인들이 그 당시 일을 지금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날 박종은 백두산 정상에 오른다. 백두산 최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느낀 웅장한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이 중국 곤륜산을

---

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빼닮았으며 규모가 미약할 뿐이라고 하였고, 곤륜산 아래로는 비록 중국의 산천이라도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그 이유로 정상에 80리의 큰 못이 있는 산은 백두산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백두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5월 25일의 일기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백두산 등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늘의 뜻이라며 감사하였다. 그리고 6월 2일 경성 어랑면 지방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8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있다.

여섯 번째,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應, 1716~1787)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이다. 서명응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754년(영조 3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副提學)·이조판서를 거친 뒤, 청나라 연경(燕京)에 사행하여 다녀왔다. 그 뒤 대제학을 거쳐 상신(相臣 : 정승)에 오르고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다.<sup>82)</sup>

그는 홍문관 부제학으로서 홍문관록을 주관하라는 임금의 명을 세 번 사양하고 임금의 노여움을 사 갑산부(甲山府)로 귀양가게 되었고, 조엄(趙曷) 역시 부제학으로 임명받았지만 사양하여 삼수부(三水府)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백두산에 오를 것을 서신을 통해 약속하고, 갑산부사 민원(閔源), 삼수부사 조한기(趙漢紀) 등과 함께 백두산으로 출발한다.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는 서명응이 1766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 간 조엄(趙曷) 등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후 돌아와 쓴 백두산 유람기이다. 이 기행기는 서명응(徐命膺)의 16권 8책으로 구성된 문집인 《보만재집(保晩齋集)》 권8에 수록되어 있다.<sup>83)</sup>

이 일기는 6월 10일 갑산부를 출발하면서부터 시작한다. 6월 12일 운총(雲籠)에 도착해서는 변경의 방비를 위한 지세를 살피고, ‘상한의(象限儀)’라는 관측기구를 이용하여 북극성이 떠오르는 것을 관측하며 위도를 측정하기도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

한다.

그들은 6월 14일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곳에 이른다. 이 곳에서 서명응은 청측의 목극등에 의해 부당하게 경계를 정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또한 목극등은 오랑캐 사람으로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을 더했는데, 접반사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는 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천지에 이르러 그 경치를 감상하고 반나절을 자유롭게 유람하며 백두산 12봉우리의 이름을 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6월 16일 자포(自浦)를 출발하여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에 이르렀을 때, 서명응과 조엄은 유배에서 풀렸다는 공문을 받게 된다. 이 소식에 기뻐하며 길을 출발하여 운룡(雲龍)에 도달함으로써 7일 간의 백두산 기행을 마친다.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의 저자 서명응과 조엄은 유배 길에 백두산을 유람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이중하(李重夏, 1846~1917)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이다. 1885년 8월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이중하가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일을 남긴 기록이다.

기록은 백두산의 지명 유래를 쓰면서 시작된다. 이중하는 1885년(고종 22) 8월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의 명을 받고, 9월 중국 측 감계관 진영(秦煥),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처 조사를 위해 회령(會寧)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10월 6일 무산(茂山)에 도착하여 백두산으로 향한다. 이때 날씨가 차고 눈이 쌓여 오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10월 18·19일의 일기에서는 이날 밤에 중국 관원 두 사람이 백두산에 오르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중하가 ‘깊은 밤에 출발하는 것은 인명과 관계되어 그리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크게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하는 이를 ‘처음부터 그들은 감계에는 뜻이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여 계획을 정지시키려 한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결국 한밤중에 일제히 산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 관원들이 지쳐서

마지못해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가소롭다고 심경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청측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쓴 굳은 의지로 영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중하를 비롯한 우리 측의 감계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길을 뚫고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결국 정계비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된다.

10월 22일 장파(長坡)에 도달하여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백두산을 다녀 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10월 27일 무산부(茂山府)로 돌아옴으로써 모든 기록을 끝내고 있다. 이 일기는 우리 측과 중국 측 감계관이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답사하고 그 발원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기의 저자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면 <표-1>과 같다.

<표-1> 백두산 기행기와 기행기 저자

	생물 년도	저자주요 경력	기행기	연대	출전
김지남 (金指南)	1654~ ?	조선 후기의 역관(譯官) 백두산 경계의 조사 과정 당시에 역관(譯官)으로 참여	북정록 (北征錄)	1712.2.24~ 1712.6.3	1책 204장. 필사본. 책의 원본은 1944 년 11월까지 저자의 8대손인 김세목 (金世穆)이 보관했 으나 지금은 행방 을 알 수 없다. 다 만 필사본만이 현 재 국사편찬위원회 에 소장되어있다(소 장번호B6B-127).
박권 (朴權)	1658~ 1715	조선 후기의 문신 백두산 경계의 조사과정에서의 당시 접반사(接 伴使)	북정일기 (北征日記)	1712.3.17~ 1712.7.13	1책 55장. 필사본. 원본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일제강점 기 조선총독부 조 선사편수회(朝鮮史 編修會)에서 등사한 것이 현 국사편찬 위원회에 소장
홍세태 (洪世泰)	1653~ 1725	조선 후기의 문인 1675년(숙종 1) 을묘식년시에 잡과인 역과(譯 科)에 응시하여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 학관(吏文學官)에 제수, 1698년 이문학관에 부 임	백두산기 (白頭山記)	1712.4.29~ 1712.5.12	조선 후기의 문인 홍세태(洪世泰)의 시문집으로 14권 7 책으로 구성된 ≪ 유하집(柳下集)≫ 권9에 수록
이의철 (李宜哲)	1703~ 1778	조선 후기의 문신. 1727년(영조3)에 진사가 된 뒤 장릉참봉(長陵參奉)과 군사감봉사(軍資監奉 事) 등을 지내다가, 1748년(영조 24) 춘당대문 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검열(檢 閱)이 되었다. 1752년 지평(持平)과 대사간을 거쳐 승지로 취임.	백두산기 (白頭山記)	1751.5.24~ 1751.윤5.3	.
박종 (朴琮)	1735~ 1793	조선 후기 함경도 경성의 유학자	백두산유록 (白頭山遊錄)	1764.5.14~ 1764.6.2	저자의 문집인 ≪ 당주집(鎭洲集)≫ 권14 유록(遊錄)에 수록
서명응 (徐命應)	1716~ 1787	조선 후기의 문신. 1754년(영조 3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부제학(副提學)·이조판서를 거친 뒤, 청나라 연경(燕京)에 사행하여 다녀왔다. 대제학을 거쳐 상신(相臣 : 정승)에 오르고 봉 조하(奉朝賀)에 이르렀다.	유백두산기 (遊白頭山記)	1766.6.10~ 1766.6.16	서명응(徐命膺)의 문집(16권 8책)인 ≪보만재집(保晩齋 集)≫ 권8에 수록
이중하 (李重夏)	1846~ 1917	조선 말기의 문신. 1885년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서 청국측 대 표 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 地界)를 심사. 1886년 덕원항감리(德源港監理), 1887년 다시 토문감계사가 되어 회담을 재개, 1890년 이조 참의가 되어 충청도암행어사 임무 수행. 1894년 외무부협관·의정부도헌이됨, 김홍집내각 이 무너지고 지방제도가 개편되자 대구부관찰 사로 임명됨.	백두산일기 (白頭山日記)	1885.10.6~ 1885.10.27	.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이용하여 작성.

### 3.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과 경관에 대한 인식

#### 1) 백두산에 대한 인식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행기에 기록된 백두산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표-2).

<표-2> 백두산 기행기 저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

이름	백두산에 대한 인식
김지남	백두산은 우리나라 여러 산 가운데 으뜸 산이다.
박권	기록 없음
홍세태	백두산은 북방 여러 산의 원조이며 청나라가 여기에서 일어났다.
이의철	백두산은 청나라와 우리나라 못 산들의 조산으로 가장 빼어난 산이다. 또한 덕을 갖추고 맑고 깨끗한 기상이 우리나라 큰 산들 가운데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산천의 조종(祖宗)이 되는 듯하며 우리나라가 소중화(小中華)가 된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박종	백두산은 동국의 곤륜산이다. 즉 중국의 곤륜산을 빼닮아 형체는 제대로 갖추었으나 규모가 미약한 것일 뿐이다. 곤륜산 아래로는 비록 중국의 산천이라도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
서명응	백두산은 해(亥 : 북북서)방향을 등지고 사(巳 : 남남동)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팔도의 여러 산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중하	멀리 백두산 전체를 보니 아침 해가 쌓인 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밝게 빛나고 조용한 데 한 포기 풀과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가득 어우러져 하늘에 솟아 있으니 마치 수정으로 만든 궁전 같고 옥으로 지어진 세계 같아 사람의 마음과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또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며 공경케 하고 삼가 두렵게 만들었다.

자료: 백두산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먼저, 김지남은 「북정록(北征錄)」의 서문에서 ‘백두산은 우리나라 여러 산 가운데 으뜸 산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권의 경우 「북정일기(北征日記)」에 백두산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박권이 조선 측 접반사로 국경을 정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나 백두산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정일기(北征日記)」의 기록은 국경문제와 정계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지 않다. 이는 당시 박권은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의 일방적인 조치로 국경이 정해진 탓이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6월 3일 청나라 사신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6월 4일부터의 기록이 더욱 상세하며, 돌아오는 도중 들른 금강산의 뛰어난 경치에 대해 감탄하고 시를 짓기도 한다.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는 김경문의 기행을 기록하기 전에 ‘백두산은 북방 여러 산의 원조이며 청나라가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또한 ‘산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마치 사람의 머리에 있는 솥구멍과 같았다. 못의 둘레는 약 20~30리 되고 색은 흑요석처럼 새까만 것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계절이 바야흐로 초여름인데도 빙설이 쌓여 있어 멀리 바라보면 아득한 은색의 바다 같았다’라고 김경문이 천지를 본 소감도 적고 있다.

이의철은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 ‘이 산의 모양은 둥글고 원만한데 유독 한 곳만 돌산이 솟아 있고 그 꼭대기는 탁 트여서 일곱 개의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고 가운데에 큰 못이 있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천지이다. 상봉에 앉아서 천지를 굽어 살펴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하고 두렵게 하였다. 알지 못하지만 천지조화의 기묘함이 여기에서 극치를 이룬 것이리라. 천지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서는 주위 둘레가 40리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10리 아니면 5리 정도에 불과하였다. 남북으로는 조금 길고 동서로는 조금 짧았는데 대체적으로 둥근 모양이었다. 천지의 수면에 얼음이 가볍게 얼어 있었다. 물 색은 푸른 빛을 띤 검은 색이었으며 또한 녹색도 있었는데

조금도 흐리거나 탁한 기색이 없었다'라고 천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은 청나라와 우리나라 못 산들의 조산으로 가장 빼어난 산이며, 백두산은 덕을 갖추고 맑고 깨끗한 기상이 우리나라 큰 산들 가운데 최고이고 때문에 우리 산천의 조종(祖宗)이 되는 듯 하며 우리나라가 소중화(小中華)가 된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듯 하다고 하였다.

박종은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에서 백두산을 오르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가난한 선비의 몸으로 뜻을 이룰 수 없어 한스럽게 생각한지 오래라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간절히 백두산을 오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백두산은 동국의 곤륜산이다'라고 하였다. 즉 중국의 곤륜산을 빼닮아 형체는 제대로 갖추었으나 규모가 미약한 것일 뿐이며, 곤륜산 아래로는 비록 중국의 산천이라도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백두산이 곤륜산의 적장자가 되고, 오악은 단지 그 가까운 조상의 서자나 지자가 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박종은 백두산의 외형적인 면을 명나라의 지리지를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한 후에, '백두산이 우주 생성에 맞추어 원기를 받아 생겨나, 우리나라 전역에 바탕을 두면서 우리 문화를 수호하는 상징물'로 인식하는 내면적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긍심은 백두산 등정을 강행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sup>84)</sup>

그는 1764년 5월 23일 기록에서 천지에 대해 '높은 절벽이 둥글게 웅립하여 있고, 바위 봉우리들이 늘어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큰 난봉(鸞鳳 : 전설 속의 새)이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한가운데 큰 못이 있는데, 천 길 아래로 빠져 마치 웅기 속에 물이 담긴 듯하였다. 굽어 내려다보니, 아득하여 김푸른 것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땅 구멍 속으로 통하는 것 같았다. 얼음이 수면에 덮여 있었는데, 녹은 곳은 겨우 4분의 1쯤 되었다. 색은 벽옥 유리와 같았고, 대리석 무늬가 영롱하고 사방의 경치가 비치며, 얼음이 얇아서 거울과 같았다. 때로는 그 색이 청흑색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개 흘

84) 임치균, 1996, "「白頭山遊錄」 연구",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pp.414~415.

러가는 구름 조각이 그림자를 비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며 천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에서 서명응은 '봉우리들을 내려다보니 혹은 높고 혹은 낮으며 혹은 뾰족하고 혹은 둥근 것이 마치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데 구름이 넓고 푸르러 만리에 걸쳐 서로 이끌며 받드는 것 같다. 몸을 돌려 두 봉우리의 사이에 서니 봉우리 밑에 5,600장(丈) 정도 거리에 텅 비고 평평한 곳에 큰 못이 있다. 둘레가 40리 인데 물이 매우 푸르러서 하늘빛과 위아래가 한색이다'라고 천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은 해(亥 : 북북서)방향을 등지고 사(巳 : 남남동)방향으로 향하고 앉아서 우리나라 팔도의 여러 산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유배를 가는 길에 백두산을 유람하게 된 일을 두고 '죄를 입은 것이 백두산을 유람시키고자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백두산을 오른 일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이중하는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에서 백두산을 멀리서 바라본 소감을 적고 있다. '멀리 백두산 전체를 보니 아침 해가 쌓인 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밝게 빛나고 조용한데 한 포기 풀과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가득 어우러져 하늘에 솟아 있으니 마치 수정으로 만든 궁전 같고 옥으로 지어진 세계 같아 사람의 마음과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또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며 공경케 하고 삼가 두렵게 만들었다' 이를 보고 백두산에 대한 외경심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천지에 직접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봉우리는 사각(四角)인데 듣자니 가운데 커다란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나 된다고 한다. 매양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못 가운데에서 피어올라 하늘에 가득 차니 대개 산 연못의 변화가 끝이 없다. 정계비가 있는 곳에서 10여 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바람과 눈이 하늘에 가득해 올라가 볼 수 없어서 매우 유감스러웠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7명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백두산 기행기의 천지에 대한 경관 묘사와 백두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비록 박권은 백두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6명의 경우에는 백두산에 대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6명 모두 백두산에 대한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두산 정상에 있는 호수인 천지는 기행자들로 하여금 백두산을 더욱 신성하고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해 주고 있다.

단순히 백두산을 유람하려는 목적을 가진 박종과 서명응의 경우를 살펴보면, 박종은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에서 백두산을 오르고 싶어 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아들이 병을 앓아 누워있는 근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백두산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에서 백두산을 오르고자 하는 간절함을 알 수 있다.

서명응도 역시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에서 백두산을 유람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유배지가 백두산 아래 있는 것을 두고 ‘하늘이 나로 하여금 백두산 유람을 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백두산을 오르는 일을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백두산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 평생 동안 한번 쯤 꼭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 2) 자연경관과 인문경관 묘사

7명의 백두산 기행자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 거쳐 가는 곳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기행자들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았다.

자연경관에 대한 기록은 주로 고개·하천·산과 산맥 등에 대한 기록이었

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입지·방어 등과 같은 인문경관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지남은 1712년 4월 5일 홍원현에 이르러 천도(穿島)라는 섬의 경치를 구경하러 간다. 그리고 천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며 기이한 광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동하는 도중에 넘은 후치령에 대해서도 ‘고갯길이 높고 험하기가 철령이나 함관령보다 다섯 배나 더하였다’라고 하여 험한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고갯마루 북쪽은 삭풍이 지독히 매섭게 불고 빙설에 덮인 높은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그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쌓여 있는 눈과 얼음들은 여름이 지나도록 녹지 않는다. 그리고 7월에 이미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귀리 이외에는 다른 곡식은 익지 않는다고 한다. 이곳 토박이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기록을 보고 그곳의 추운 날씨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박권은 1712년 3월 28일 ‘서진강(西津江)을 건너고 철령(鐵嶺)을 넘었다. 가파르고 깊은 계곡이 30리 길인데, 돌로 된 굴과 꼬불꼬불한 길이 위태롭기 그지없어 그 이름이 ‘90절 조도(九十折鳥道 : 90번 꺾어진 새길)’라 하였으니 으름가는 요새였다’라며 그 지역의 자연적 방어 상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6월 16일에 성진(城津)에서는 ‘한 섬이 바다 가운데로 돌입하여 있는데 삼면이 모두 석벽이어서 천연적인 요새인데다 물과 나무가 풍족하니 진실로 북쪽 지방 제일 관방(關防)이었다’라고 하였다. 박권은 주로 방어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김지남과 마찬가지로 함관령과 철령, 후치령 고개의 높고 험준함을 기록하였다.

김경문은 1712년 5월 7일 ‘오시천은 경성(鏡城)의 장백산 서쪽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러 강물과 합해지는데 오시천의 바깥쪽은 모두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오시천과 주변 경관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1712년 5월 10일 소백산 산마루에서 보이는 백두산을 ‘웅후(雄厚)하고 박대(博大)해서 천 리가 한결같이 푸르렀다’라고 하였으며, ‘고개 밑에는 한 줌의 흙도 한 포기

풀도 없고 가끔 소나무와 삼나무만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부대껴서 모두 왜소하고 굵어 있었다'라며 나무의 수종, 왜성변형수와 편향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의철은 1751년 5월 27일 기록에서 '천회참(泉會站)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였다. 5리쯤 가니 길이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이곳은 비가 오면 내(川)가 생기지만 날씨가 개이면 모래펄이 된다. 모래 위에 깔려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위 포석(泡石)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품돌 가운데 큰 것은 주먹만하기도 하고 감만한 것도 있으며, 작은 것은 바둑알이나 밤톨만하였다. 큰 것은 부수면 모두 잘게 쪼개지는데, 작은 것은 매우 가벼워서 물에 둥둥 뜬다. 나무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돌을 숫돌로 만들어 쓴다. 어떤 것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두산 근처에만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화산 분출물 중에서 비교적 희읍스름한 다공질(多孔質)의 암괴(岩塊)인 부석(浮石)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거품돌은 부석을 북한말로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백두산에서 화산활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월 28일에는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큰 산이 구름 끝에 띠처럼 가로 걸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다산(甫多山)이며 산맥이 달려서 장백·마운령·마천령 등 여러 산이 되는데 모두 우리나라의 지역 내에 있다. 보다산은 소백두산(小白頭山)을 조산으로 삼고 소백두산은 대백두산(大白頭山)을 조산으로 삼는다. 이른바 분수령은 소백두산에서 내려오던 산맥이 협곡을 지나다가 북북서에서 맥이 떨어져 평탄하게 된 것인데, 좌우에서 웅위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다. 이것이 바로 풍수설에서 말하는 "협곡을 지나가는 곳은 바람을 맞지 않는다"는 곳이다'라는 산맥체계에 대한 인식과 풍수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다.

박종 역시 1764년 5월 23일 기록에서 백두산의 부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식생이 거품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5월

24일 기록에서는 천평(天坪)에 대해 ‘백두산 아래 끝없이 광활한 곳을 천평이라고 한다. 천평 끝내는 남중산(南甌山), 녹운산(綠雲山)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솟아 있다. 두 산은 오르내리며 내려오다가 소흥단수와 토문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서 맥이 끝난다. 그 사이에 있는 들판을 장파(長坡)라고 하고, 구릉지대를 석류계원(石留憩院)이라고 한다. 이곳은 산의 형세와 토양이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하다. 여기에 비하면 천평은 땅이 척박하고 서리가 일찍 내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과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서명응도 1766년 6월 10일의 기록에서 ‘북쪽으로 후덕산(厚德山)·마고정(麻姑頂)·손전항(遜田項)을 지났다. 촌락들이 띄엄띄엄 뒤섞여 늘어서 있는데 마치 바둑판 같았다’라고 촌락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길 주변에는 당수(棠樹)가 많았다. 열매는 대추알 같았으며 길에 잔뜩 떨어져 있었다. 그 곳 사는 주민들은 산대추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대추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6월 13일의 기록에서 천평(天坪)에 대해 ‘허항령은 구불구불 이어져서 북방으로 길게 뻗어 절정을 이루니 바로 삼수·갑산의 척추가 되고, 백두산과 소백산의 출입문이 된다. 이곳은 무산으로 가는 길과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곳이 된다. 북쪽 사람들은 여기를 천평(天坪)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이중하도 역시 천평(天坪)에 대해 ‘가는 길이 평탄하였는데 이를 천평(天坪)이라 하였다. 여기가 바로 백두산 전면의 명당 자리였다. 너비가 거의 100리나 되었고 수목이 울창하였다. 만일 기후가 차고 서리가 일찍 내리는 땅이 아니라면 큰 도시를 세울 만한 곳 이었다’라고 천평의 도시로서의 위치의 장점과 기후적인 제약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7명의 백두산 기행자들은 백두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들른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박권과 서명응, 이중하는 방어와 촌락의 모습, 도시 입지 등 인문경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기행자들은 주로 자연경관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백두산 기행 양식

다음으로 7편의 백두산 기행기에서 보이는 백두산 기행자들의 기행 양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백두산 기행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때문에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유람을 목적으로 백두산을 오른 경우이다. 7편의 백두산 기행기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김지남(金指南)의 「북정록(北征錄)」, 박권(朴權)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의철(李宜哲)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종(朴琮)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徐命膺)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이다.

기행 목적에 따라 그 기행 양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위의 7편의 백두산 기행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의 기행 양식을 살펴보았다.

기행 양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박권·김경문·이중하의 경우와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이의철·박종·서명응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백두산 기행기에서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지역 관원의 영접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박권·김경문·이중하의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을 살펴보았다.

김지남은 「북정록(北征錄)」에서 ‘접반사 : 행부사직(行副司直) 박권(朴權),

군관 : 경직(京職) 홍원익(洪元翼)·선전관(宣傳官) 이의복(李義復), 차비관(差備官) : 전 사역원정(前司譯院正) 장원익(張遠翼), 공간당상(公幹堂上) : 행부사직(行副司直) 김지남(金指南)·행부사용(行副司勇) 김응헌(金應憲), 공간당하(公幹堂下) : 전 첨정(前僉正) 김만희(金萬喜), 전 판관(前判官) 이세만(李世萬) 등'과 함께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상으로 인원수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고 기행기를 바탕으로 정확히 파악된 인원은 8명이다. 이는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시킨 것이며, 함께 간 김경문의 기행에 대해 쓴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의 기록을 참고한 결과 그 수는 더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할 때는 말과 가마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과 귀환 도중에 숙박한 지점은 <표-3>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데, 객사에 머물거나 임시 숙소를 이용하거나 장막 또는 천막에서 잤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숙박한 곳의 지명만을 쓰고 있다.

다음으로 박권의 경우, 「북정일기(北征日記)」에서 동행인에 대해 따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으나 김지남·김경문과 함께 이동했으므로 그들의 기록을 참고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김지남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동할 때는 말과 가마를 이용했으며, 필요시에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과 귀환 도중에는 객사·여염집·역로에 마련되어 있던 숙박 시설인 참(站) 등에서 숙박하였으며 강변에서 노숙을 한 경우도 있었다(표-3). 또한 금강산을 유람할 때는 사찰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 지점에서 어떻게 숙박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숙박한 곳의 지명만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문의 기행 양식은 홍세태(洪世泰)의 「백두산기(白頭山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동행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청나라에서는 '목극등, 필첩

식(筆帖式) 소이창(蘇二昌), 대통관 이가(二哥), 일꾼 20명, 짐 싣는 소와 말 40~50필, 짐꾼 43명'으로 약 66명이고, 조선에서는 '접반사 박권(朴權),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 역관 김지남(金指南), 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 허량(許樑), 나난만호 박도상(朴道常), 역관 김응헌(金應憲), 김경문, 길잡이 3명, 도끼잡이 10명, 말 41필, 짐꾼 47명'의 약 69명으로 파악되어, 총 135명 정도가 함께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지남과 박권에 비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동 시에는 주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였다. 김경문의 기행은 1712년 4월 29일~1712년 5월 12일까지로 김지남과 박권에 비해 기록이 짧다. 이동하는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주로 노숙하였거나 천막에 머무르기도 했다고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지점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적다.

이중하는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에서 중국 측은 '감계관(中國勘界官) 진영(秦煥)·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 화원(畫員) 염영(廉榮)', 조선 측에서는 '수행원 안무중군(按撫中軍) 최두형, 전 오위장(前五衛將) 최오길(崔五吉), 전 첨지(前僉知) 이후섭(李后燮), 출신(出身) 오원정(吳元貞), 영리(營吏) 전보권(全普權), 가동(家僮) 흥업(興業), 근예(跟隸) 춘길(春吉)·응범(應範)·이돌(利芻), 종사관 조창식(趙昌植), 화원 김우식(金禹軾)'등이 함께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수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고 위의 인원을 파악해 보면 16명이지만, 역시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시킨 것이어서 총 이동 인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하도 역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과 귀환 도중에 숙박한 지점을 살펴보면, 막사에서 잤다는 기록이 있으나 대부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숙박한 곳의 지명만을 쓰고 있다.

<표-3>은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3〉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기행자들의 기행 양식

이름	동행인	이동수단	경로	이동 기간	숙박 지점
김지남	집반사 : 행부사직(行副司直) 박권(朴權), 군관 : 경직(京職) 홍원익(洪元翼)·선전관(宣傳官) 이의복(李義復), 차비관(差備官) : 전 사역원정(前司譯院正) 장원익(張遠翼), 공간당상(公幹堂上) : 행부사직(行副司直) 김지남(金指南), 행 부사용(行副司勇) 김응현(金應憲), 공간당하(公幹堂下) : 전 첨경(前僉正) 김만희(金萬喜), 전 판관(前判官) 이세만(李世萬) 등  * 약 8명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	말가마	가는 경로	1712.2.29~1712.3.15	F 서흥현(瑞興縣) [2.30,익연당(益捐堂)] - J 중화부(中和) [3.1~7] - H' 봉산군(鳳山郡) [3.8] - F' 서흥(瑞興) [3.9] - E' 평산(平山) [3.10] - K 개성(開城) [3.11~13] - M 파주(坡州) [3.14]
				1712.3.25~1712.5.10	1 동대문 밖 의막(依幕) [3.24] - 4 영평(永平) [3.25,양문역(良文驛)] - 7 금성현(金城縣) [3.26] - 9 회양(淮陽) [3.27] - 11 고산(高山) [3.28,석왕사(釋王寺에서 묵음)] - 14 문천군(文川郡) [3.29] - 16 영흥부(永興府) [4.1] - 18 함흥(咸興) [4.2~3] - 19 덕산역(德山驛) [4.4] - 21 홍원(洪原) [4.5] - 24 북청(北靑) [4.6~8] - 26 제인관(濟仁館) [4.19] - 30 종포역(終浦驛) [4.10] - 35 갑산(甲山) [4.11~12] - 37 삼수부(三水府) [4.13~17] - 42 구갈파지(旧架坡知) [4.18~25] - 45 후주(厚州) [4.26~29,동대과수(東臺把守)앞에 친 천막] - 44 송전(松田) [4.30] - 42 구갈파지(旧架坡知) [5.1] - 46 나난진(羅暖鎭) [5.2] - 48 인차외(仁遮外) [5.3, 객사에 머뭇. 장경 이하 사람들은 천막 치고 노숙] - 50 혜산령(惠山嶺) [5.4~6] - 53 검천(劍川) [5.7,물가의 천막] - 56 자포수(自浦水) [5.8, 장막] - 57 임연수(臨淵水) [5.9]
			귀환로	1712.5.10~1712.6.2	60 장과(長坡) [5.10,임시숙소] - 62 노은동산(魯隱東山) [5.11] - 64 대홍단수(大紅丹水) [5.12,무산에서 설치한 장막] - 65 임강대(臨江臺) [5.13] - 68 무산부(茂山府) [5.17] - 68 무산부(茂山府) [5.22~23] - 69 풍산진(豊山鎭) [5.24] - 71 회령부(會寧府) [5.25] - 74 종성부(鍾城府) [5.26] - 78 온성부(穩城府) [5.27] - 82 경원부(會寧府) [5.28] - 85 아산진(阿山鎭) [5.29] - 87 경흥부(慶興府) [5.30] - 85 아산진(阿山鎭) [6.1] - 84 건원보(乾原堡) [6.2]
박권	집반사 : 행부사직(行副司直) 박권(朴權), 군관 : 경직(京職) 홍원익(洪元翼)·선전관(宣傳官) 이의복(李義復), 차비관(差備官) : 전 사역원정(前司譯院正) 장원익(張遠翼), 공간 당상(公幹堂上) : 행부사직(行副司直) 김지남(金指南), 행부사용(行副司勇) 김응현(金應憲), 공간당하(公幹堂下) : 전 첨경(前僉正) 김만희(金萬喜), 전 판관(前判官) 이세만(李世萬) 등  * 약 8명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	말가마도보	가는 경로	1712.3.25~1712.5.10	4 영평(永平) [3.25,양문역(良文驛)] - 7 금성(金城) [3.26] - 9 회양(淮陽) [3.27] - 11 고산(高山) [3.28] - 13 문천(文川) [3.29] - 15 영흥(永興) [4.1] - 18 함흥(咸興) [4.2~3,객사] - 19 덕산참(德山站) [4.4] - 21 홍원현(洪原縣) [4.5] - 23 북청(北靑) [4.6~8] - 25 제인참(濟仁站) [4.9] - 28 종포참(從浦站) [4.10] - 32 갑산(甲山) [4.11~12] - 35 삼수부(三水府) [4.13~17] - 40 구갈파지(旧架坡知) [4.18~25] - 43 후주(厚州) [4.26~29, 장항(獐項)에 도착하여 강변에서 노숙] - 42 송전(松田) [4.30] - 40 구갈파지(旧架坡知) [5.1] - 38 신갈파지(新架坡知) [5.2] - 46 인차외(仁遮外) [5.3] - 49 혜산(惠山) [5.5] - 53 검천(劍川) [5.7, 강변에서 노숙] - 55 자포(自浦) [5.8] - 56 임연수(臨淵水) [5.9]
				1712.5.10~1712.7.13	1 장과(長坡) [5.10,노숙] - 4 노은동산(盧隱東山) [5.11,노숙] - 5 풍과(豊坡) [5.12,노숙] - 7 임강대(臨江臺) [5.13~17,여염집] - 9 무산(茂山) [5.22~23] - 11 풍산진(豊山鎭) [5.24] - 13 회령부(會寧府) - 16 종성부(鍾城府) [5.26] - 18 영달보(永達堡) [5.27] - 20 경원부(慶源府) [5.28] - 22 아산진(阿山鎭) [5.29] - 22 아산보(阿山堡) [6.1] - 21 건원보(乾原堡) [6.2~3] - 26 구건원(舊乾元) [6.4] - 27 북행영(北行營) [6.5] - 29 회령부(會寧府) [6.6] - 30 고평산(古豊山) [6.7] - 32 수성참(輸城站) [6.8] - 33 경성(鏡城) [6.9~11] - 34 영강참(永康站) [6.11] - 37 명창(明倉) [6.12] - 38 명천부(明川府) [6.13,계심사에서 묵음] - 41 아간창(阿澗倉) [6.14~15] - 43 성진(城津) [6.16,조일현(朝日軒)에서 묵음] - 45 단천(端川) [6.17] - 47 이성(利城) [6.18] - 49 북청(北靑) [6.19] - 51 홍원(洪原) [6.20] - 54 함흥(咸興) [6.21~25] - 55 정평(定平) [6.26] - 57 영흥

				부(永興府) [6.27] - 58 고원(高原) [6.28] - 60 덕원(德源) [6.29~7.1] - 61 학포 [7.2] - 63 통천(通川) [7.3] - 64 금강산(金剛山) [7.4:발연사,7.6:유점사,7.7:마하연,7.8~9:표훈사,7.10:장안사] - 67 창도참(昌道站) [7.11] - 70 풍전(豊田) [7.12]	
김경문	-청나라 : 목극등, 필첩식(筆帖式) 소이창(蘇二昌), 대동관 이가(二哥), 일꾼 20명, 짐 싣는 소와 말 40~50필, 짐꾼 43명 (66명) -조선 : 집반사 박권(朴權),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 역관 김지남(金指南), 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 허량(許樑), 나난만호 박도상(朴道常), 역관 김응현(金應憲), 김경문, 길잡이 3명, 도끼잡이 10명, 말 41필, 짐꾼 47명 (69명)  * 약 135명	말도보	가는 경로	1712.4.29~1712.5.11	11 검천(劍川) [5.7] - 백두산 정상에 내려와 천막에 머무 [5.11]
		귀환로		1712.5.12	기록 없음
이중하	-중국 : 감계관(中國勘界官) 진영(秦煥)·덕옥(德玉)·가원계(賈元桂), 화원(畫員) 염영(廉榮) -조선 : 수행원 안무 중군(按撫中軍) 최두형, 전오위장(前五衛將) 최오길(崔五吉), 전 침지(前僉知) 이후섭(李后燮), 출신(出身) 오원정(吳元貞), 영리(營吏) 전보권(全普權), 가동(家僮) 흥업(興業), 근예(跟隸) 춘길(春吉)·응범(應範)·이돌(利鬲) 종사관 조창식(趙昌植), 화원 김우식(金禹軾)  * 약 16명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	말도보	가는 경로	1885.10.6~1885.10.19	4 장파(長坡) [10.15] - 6 직동(直洞) [10.16,사냥꾼들이 자는 막사] - 9 절과총수(折把總水) [10.17,막사. 나머지 인마는 노천에서 머무]
		귀환로		1885.10.19~1885.10.27	B 수봉(堅峯) [10.19,막사] - C 신무충(申武忠) [10.20,막사] - 6 직동(直洞) [10.21] - 4 장파(長坡) [10.22~24]

주 : 1) 숙박지점 앞의 알파벳과 숫자는 고지도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냄(제 4장 <그림-1, 2, 3, 4, 8> 참고).  
2) [ ] 안의 내용은 숙박 날짜와 숙박 장소임.  
자료: 백두산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다음으로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이의철·박종·서명응의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에 대해 살펴보자.

이의철은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 이백흥(李百興), 전 수어초관(前守禦哨官) 강덕구(姜德耆), 병방군관(兵房軍官) 백수회(白受繪), 기타 장교 몇 명, 토병(土兵), 포수 등 총 40여명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동할 때는 말과 가마를 이용하였다.

어디에서 숙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숙박한

곳의 지명만을 쓰고 있으며, 임시숙소나 참(站)에서 숙박하기도 하였다.

박종은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에서 경성부사겸북병사(鏡城府使兼北兵使) 신상권(申尙權), 무산부사(茂山府使), 감영의 막료인 조첨지(趙僉知 : 延來), 친구 김조언(金肇彦) 등 총 37명이 함께 갔다고 기록한다.

박종은 이동 시 말을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였다. 또한 그는 숙박 지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숙박한 곳의 지명뿐만 아니라 객관·촌가·움막·유계소(留憩所) 등을 이용한 사실과 노숙을 하거나 당숙부 댁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록해 그 기록이 자세하다.

서명응은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에서 갑산부사 민원(閔源), 삼수부사 조한기(趙漢紀), 조엄(趙曠), 민정항(閔廷恒), 갑산 선비 조현규(趙顯奎), 군교원상태(元尙泰), 서명응의 손님인 최우흥(崔遇興)·홍이복(洪履福) 그리고 조엄의 손님 이민수(李民秀)와 동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기록에서 인원수에 대한 별다른 기록은 없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약 10명이 함께 갔으며, 이는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시킨 것이어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기록에서 말과 가마, 도보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촌의 숙소·막사·휴계소(休憩所) 등에서 숙박하였다.

<표-4>는 단순 유람을 목적으로 한 기행자들의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4>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기행자들의 기행 양식

이름	동행인	이동 수단	경로	이동 기간	숙박 지점
이의철	이백흥(李百興), 전 수어초관(前守禦哨官) 강덕구(姜德壽), 병방군관(兵房軍官) 백수회(白受繪), 기타 장교 몇 명, 토병(土兵), 포수 등 * 총 40여명	말가마	가는 경로	1751.5.24~1751.5.28	3 운룡진(雲龍鎭) [5.24] - 8 심포(深浦) [5.25] - 10 잉어수(林魚水) [5.26] - 14 연지방(臙脂峰) [5.27 : 임시숙소, 5.28 : 천회참]
			귀환로	1751.5.28~1751.6.3	9 자개령(自介嶺) [5.29] - A 혜산진(惠山鎭) [6.2,괘궁정(掛弓亭)]
박종	경성부사겸북병사(鏡城府使兼北兵使) 신상권(申尙權), 무산부사(茂山府使), 감영의 막료인 조첨지(趙僉知 : 延來), 진구 김조연(金肇彦) 등 * 총 37명	말도보	가는 경로	1764.5.14~1764.5.23	3 부령(富寧) [5.15,객관(客館)] - 4 차유령(車踰峯)고개 [5.16,고개 넘어 신참(新站)의 촌가] - 5 무산(茂山) [5.17~18] - 10 삼산(三山) [5.19,민가] - 15 녹운동산(綠雲東山) [5.20,인부들이 나무로 지은 협소한 움막] - 21 삼지(三池) [5.21,유계소(留憩所) - 24 연지방(臙脂峰) [5.22,임시 움막]
			귀환로	1764.5.23~1764.6.2	21 삼지연(三池淵) [5.23,움막] - 14 장과(長坡) [5.24] - 10 삼산(三山) [5.25,노숙] - 5 무산(茂山) [5.26] - A 폐무산(廢茂山) [5.27] - 3 부령(富寧) [5.28] - 2 수참(輸站) [5.29] - 1 경성(鏡城) [6.1, 온촌(溫村)의 당숙부 댁]
서명응	갑산부사 민원(閔源), 삼수부사 조한기(趙漢紀), 조엄(趙嚴), 민정항(閔廷恒), 갑산 선비 조현규(趙顯奎), 군교 원상태(元尙泰), 서명응의 손님 - 최우흥(崔遇興)· 홍이복(洪履福) 조엄의 손님-이민수(李民秀). * 약 10명 (길잡이·도끼잡이·마부·짐꾼 등의 수는 제외)	말가마도보	가는 경로	1766.6.10~1766.6.14	4 운룡(雲龍) [6.10,촌의 숙소] - 14 심포(深浦) [6.11, 막사] - 18 잉어수(林魚水) [6.12] - 22 연지방(臙脂峰) [6.13,휴계소(休憩所)]
			귀환로	1766.6.14~1766.6.16	21 천수(泉水) [6.14] - 16 자포(自浦) [6.15,자포참(自浦站) 막사]

주 : 1) 숙박지점 앞의 숫자는 고지도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냄(제 4장 <그림-5, 6, 7> 참고).  
2) [ ] 안의 내용은 숙박 날짜와 숙박 장소임.  
자료: 백두산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다음으로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박권·김경문·이중하의 경우와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이의철·박종·서명응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역 관원의 영접’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5>와 <표-6>으로 정리하였다.

<표-5>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지역 관원의 영접

이름	지역 관원의 영접	
김지남	1712.3.26 : 부사(府使) 이이만(李頤晩)이 대접. 1712.3.28 : 고산찰방 박성로(朴聖輅)가 접반사를 보러옴. 1712.3.29 : 덕원부사 이정휴(李徵休)가 맞이함. 겸관(兼官)고원군수(高原郡守) 이만정(李萬楨)이 와서 기다림. 1712.4.1 : 영흥부사 홍표(洪彪)가 접대. 1712.4.2 : 정평부사 유성일(柳星一)이 와서 기다림. 함경도 관찰사의 대접. 1712.4.5 : 홍원현감 이진상(李震相)이 기다리고 있었음. 1712.4.18 : 어면만호(魚面萬戶) 유성부가 마중. 1712.4.19 : 신갈파지첨사 이여회(李汝晦)가 접반사에게 인사드리러옴. 1712.4.20 : 구갈파지권관 손석주(孫碩胄)가 와서 접반사를 뵈. 1712.4.23 : 자작권관(自作權管) 한우석(韓宇錫), 인차외만호(仁遮外萬戶) 이중창(李重昌)이 와서 접반사를 뵈, 김경문이 접반사께 문안. 1712.5.4 : 영흥부사 홍표(洪彪)가 어첩과 예단을 받들고 와서 기다림. 1712.5.7 : 갑산부사 유구정이 임시 숙소를 지어놓고 기다림. 1712.5.10 : 함경도 도차사원인 부령(富寧)부사 구후익(具後翼), 지방관 무산(茂山)부사 이찬원(李纘源), 잠물차사원 경성관관 한재원(韓在垣), 부마차사원 수성(輸城)찰방 박규상(朴奎祥), 도로차사원 불하(豊下)첨사 김성징(金聲澄) 등이 마중. 1712.5.22 : 도차원 구후익, 본관 수령 이찬원, 부마차원 박성로 등이 길 옆에서 영접. 1712.5.25 : 회령부사 조태상이 제반 의장, 접대인, 인부 등을 거느리고 와서 기다림. 1712.5.28 : 권관 김만주(金萬冑)가 맞아 호송, 경원부사 오정석(吳挺奭)이 경계 지역에 와서 기다림. 1712.5.29 : 권관 유후선(柳后善)이 호송. 권관 남극로(南極老)가 나와 영접, 만호 남봉상(南鵬翔)이 영접. 경원부사 오정석이 수행하여 와서 기다림. 1712.5.30 : 만호 김익구(金益狗)가 영접.	
	박권	1712.3.26 : 철원부사 이이만(李頤晩)이 대접. 수령 홍중복(洪重福), 장령 오우진(吳羽進)이 인사. 1712.3.28 : 고산찰방 박성로(朴聖輅)와 만남 1712.3.29 : 덕원부사 이정휴(李徵休)가 와서 인사. 1712.4.1 : 고원군수 이만정(李萬楨), 영흥부사 홍표(洪彪)가 와서 인사. 1712.4.2 : 정평부사 유성일(柳星一), 함흥감사 이선부(李善溥)가 영접, 관관 이의수(李宜遂), 거산찰방 허량(許樑)이 와서 인사. 1712.4.12 : 삼수부사(三水府使) 장세익(張世益)이 와서 인사. 1712.4.18 : 어면만호(魚面萬戶) 유성부가 와서 인사. 1712.4.19 : 신갈파지첨사 이여회(李汝晦), 구갈파지권관 손석주(孫碩胄)가 와서 인사. 1712.4.23 : 자작권관(自作權管) 한우석(韓宇錫), 인차외만호(仁遮外萬戶) 이중창(李重昌)이 와서 인사. 1712.4.24 : 신갈파지첨사 이여회가 와서 인사. 1712.5.2 : 신갈파지첨사 이여회, 나난만호 박도상(朴道常), 소농권관 윤세정이 와서 인사. 1712.5.3 : 인차외만호 이중창, 혜산첨사 정사의(鄭思義)가 와서 인사. 1712.5.4 : 갑산부사 유구정, 운총만호 변상담(邊尙聃)이 와서 인사. 1712.5.5 : 문위관인 영흥부사 홍표가 임금님의 어첩과 자기의 명함을 예단단자와 함께 총관에게 전해주고 술상을 베풀, 갑산부사 유구정, 삼수부사 장세익, 혜산첨사 정사의, 거산찰방 허량, 운총만호 변상담, 나난만호 박도상이 와서 인사. 1712.5.6 : 혜산첨사, 진동만호, 나난만호, 인차외만호, 영흥부사가 와서 인사. 1712.5.7 : 혜산첨사, 진동만호, 나난만호, 인차외만호, 운총만호, 삼수부사, 수성찰방(輸城察訪) 박규상(朴奎祥)이 와서 인사. 1712.5.8 : 삼수부사, 수성찰방, 운총만호가 와서 인사. 1712.5.9 : 삼수부사, 수성찰방, 운총만호, 무산부사 이찬원(李纘源)이 와서 인사. 1712.5.10 : 수성찰방, 인차외만호, 운총만호, 무산부사, 부령부사 구후익(具後翼), 경성관관 한재원(韓在垣)이 와서 인사. 1712.5.11 : 부령부사, 무산부사, 경성관관, 운총만호, 불하첨사(豊下僉使) 김성징(金聲澄), 삼수부사, 인차외만호가 인사. 1712.5.21 : 경성관관, 불하첨사, 거산찰방, 나난만호가 와서 인사.

	<p>1712.5.22 : 부령부사, 거산찰방, 수성찰방, 회령부사 조상주(趙相周), 양영권관 강천령(姜千嶺)이 와서 인사.</p> <p>1712.5.24 : 무산부사, 수성찰방, 거산찰방, 양영 권관, 풍산만호, 불하첨사가 와서 인사.</p> <p>1712.5.25 : 회령부사, 거산찰방, 양영권관, 고령첨사 남택(南澤)이 와서 인사.</p> <p>1712.5.26 : 방원보권관 김찬익(金燦益), 종성부사 송유룡(宋儒龍), 양영권관, 동관첨사 김세흥(金世興)이 인사.</p> <p>1712.5.27 : 부령부사, 수성찰방, 온성부사, 유원첨사 박신공(朴信恭), 동관 첨사가 와서 인사.</p> <p>1712.5.28 : 온성부사, 부령부사, 수성찰방, 동관첨사, 방원만호, 훈홍진첨사 오세흥(吳世興), 경원부사 오정석(吳挺奭), 미전첨사 배윤정(裴潤廷), 황척과권관 김만주(金萬冑)가 와서 인사.</p> <p>1712.5.29 : 건원보권관 남극로(南極老), 안권권관 유후량(柳后亮), 경원부사, 아산진만호 남봉상, 동관첨사, 방원만호, 수성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5.30 : 아오지만호 장계원(璋繼遠)이 마중, 경흥부사 최위(崔緯), 동관첨사가 와서 인사.</p> <p>1712.6.1 : 경흥부사, 동관첨사, 방원만호가 와서 인사.</p> <p>1712.6.2 : 아산만호, 동관첨사, 방원만호, 건원권관, 경원부사, 경흥부사, 수성찰방, 훈용첨사가 와서 인사.</p> <p>1712.6.3 : 경원부사, 경흥부사, 동관첨사, 방원만호가 인사.</p> <p>1712.6.4 : 경원부사, 수성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6.5 : 경원부사 하직인사.</p> <p>1712.6.6 : 종성부사, 회령부사 조상주, 고령첨사 남택이 와서 인사. 불하첨사 하직인사.</p> <p>1712.6.7 : 고평산진만호 김정삼, 회령부사, 수성찰방이 와서 인사. 고령첨사가 하직인사.</p> <p>1712.6.8 : 회령부사, 고평산만호가 하직 인사, 부령부사, 수성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6.9 : 경성병사 장한상, 평사 홍치중, 판관 한재원이 와서 인사. 삼삼과 만호 김득강, 오촌권관 안창건, 어유간 첨사 조두진이 와서 하직 인사.</p> <p>1712.6.10 : 경성병사, 평사, 판관이 와서 인사.</p> <p>1712.6.12 : 경성판관이 하직인사.</p> <p>1712.6.13 : 명천부사 남태징, 거산찰방, 단천군수 심상운이 인사.</p> <p>1712.6.16 : 첨사 최문징, 길주목사, 거산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6.17 : 거산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6.18 : 이성군수 오태흥(吳泰興), 거산찰방이 와서 인사.</p> <p>1712.6.19 : 북청병사 윤각, 판관 성임이 와서 인사.</p> <p>1712.6.21 : 정평부사 유성일, 도사 김정, 판관 정혁선, 중군 심약허, 고원군수 이만정이 와서 인사.</p> <p>1712.6.24 : 중군, 판관, 도사, 전 군수 한항(韓沆), 전 우후 문여백(文呂伯), 출신 이천기(李千紀)가 와서 인사.</p> <p>1712.6.26 : 정평부사 인사.</p> <p>1712.6.27 : 초원감찰 한재후(韓在厚)가 와서 인사.</p> <p>1712.6.28 : 고원군수 이만정이 와서 인사.</p> <p>1712.6.29 : 문천군수 이덕운(李德運)이 인사.</p> <p>1712.7.3 : 홑곡현령 이집(李集), 군수 심정구(沈廷耑)가 와서 인사.</p>
김 경 문	기록 없음
이 증 하	기록 없음

자료: 백두산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표-6>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지역 관원의 영접

이름	지역 관원의 영접
이의철	1751.5.24 : 운총진에서 묵음. 운총진만호(萬戶) 유성협(柳聖協)이 영접. 해산첨사(僉使) 유언지(兪彦摯)가 문안 인사차 옴.
박종	1764.5.16 : 부령부사에게 말 한필을 빌림 1764.5.26 : 무산에 도착 - 무인 차천륜이 알현, 유생들의 식사대접.
서명응	1766.6.10 : 해산첨사 유언진(兪彦鎭), 운총만호 윤득위(尹得偉), 진동만호 송석손(宋錫孫), 나난만호 김구서(金龜瑞), 인차외만호 김홍제(金弘濟), 구갈과지권관 윤수인(尹守仁), 행영비장 유상화(柳尙和), 삼수인으로 전에 군수를 지낸 우정하(禹正夏)가 영접함.

자료: 백두산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지금까지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박권·김경문·이중하의 경우와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이의철·박종·서명응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백두산 기행기에서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지역 관원의 영접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기행 양식을 분석해 보았다.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이들과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이들의 기행 양식을 비교해 보면,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동행인이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상 이동 시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여야 했으며 따라서 말과 가마의 수도 많아져 그 만큼 마부나 짐꾼 등 아랫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두산 경계를 논하기 위해 함께 백두산을 올라간 청나라인들의 수 까지 더해지므로 동행한 인원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경문의 기행을 기록한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는 도끼잡이 10명이 함께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끼잡이와 함께 간 이유는 백두산을 가는 길이 험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잘라 내거나 베며 길을 내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험한 도로 상황으로 그 당시 대부분 백두산 기행자들은 기행하기 전 백성들을 동원하여 미리 길을 닦아 놓도록 하거나 일꾼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의 수까지 더하면 동행인의 수는 더 늘게

된다.

기행 시 이용한 이동 수단은 두 경우 모두 말이나 가마를 이용하였고, 필요시 도보로 이동하였으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의철은 기행기에서 평평한 곳은 말을 타고 이동하고 내리막길이나 험한 곳은 가마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행자가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숙박 지점에 대한 기록은 두 경우 모두 숙박한 곳의 지명 정도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기행한 경우와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의 차이점을 파악 할 수 없었으며, 기록을 통해 모든 기행자가 임시숙소·천막·장막·객사·객관·움막·유계소 등에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노숙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관원의 영접’에 관해서는 <표-5>와 <표-6>을 참고하여 보면 두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 중 김경문과 이중하는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김지남과 박권의 기행기를 보면 거치는 지역의 관찰사(觀察使)·부사(府使)·현감(縣監)·만호(萬戶)·판관(判官) 등의 관원들이 영접을 하고 인사를 드리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1712년 5월 8~9일의 기록을 보면, 인사 오지 않은 관원은 곤장을 치거나 파직시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에도 만호(萬戶)·권관(權管) 등이 인사를 오고 영접하기도 하였지만, 그 규모와 정도는 업무상 기행한 경우에 비해 매우 작다.

## IV. 백두산 기행로의 복원과 그 특징

### 1.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로

앞에서 살펴 본 백두산 기행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행기에서 보이는 백두산을 가는 경로와 백두산 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지남은 「북정록(北征錄)」에서 1712년(숙종 38)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기록을 남겼다. 2월 24일 명을 받고 2월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3월 1일 평안도 중화부(中和府)에 도착한다. 그러나 평안도가 아닌 함경도에서 목극등을 맞아야 했다. 때문에 3월 초6일 비변사에서 접반사는 되돌아와 상경하였다가 다시 함경도로 가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3월 15일 대궐로 가서 복명(復命)한다. 이렇게 이동한 기간은 총 17일이다.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현(沙峴)·여현(礪峴)의 선산 - 임진강(臨津江) - 황해도 금천군(金川郡) - 해서역(海西驛) - 평산부(平山府) - 서흥현(瑞興縣) - 검수참(劔水站) - 봉산군(鳳山郡) - 황주목(黃州牧) - 평안도 중화부(中和府) - 봉산군(鳳山郡) - 검수참(劔水站) - 서흥(瑞興) - 평산(平山) - 금천(金川) - 경기도 개성(開城) - 장단(長湍) - 파주(坡州) - 고양(高陽) - 여현(礪峴) - 대궐로 가서 복명(復命)함

그리고 다시 3월 24일 대궐에 가서 하직하고, 3월 25일 동대문 밖 의막에서 다시 출발하여,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하고 6월 2일 건원보(乾原堡)에 도착한다. 다음날인 6월 3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즉, 1712년 3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712년 6월 2일까지 총 67일의 기간 동안 이동하였다.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대문 밖 의막(依幕) - 양주 녹양역(綠楊驛) - 포천현(抱川縣) - 영평(永平)  
- 풍전역(豊田驛) - 김화현(金化縣) - 금성현(金城縣) - 창도역(昌道驛) - 회양(淮陽) - 철령(鐵嶺) - 고산역(高山驛) - 덕원부(德源府) - 원산포(元山浦)  
- 문천군(文川郡) - 고원군(高原郡) - 영흥부(永興府) - 초원역(草原驛) - 함흥(咸興) - 덕산역(德山驛) - 함관령(函關嶺) - 홍원(洪原) - 평포(平浦) - 삼관령(三關嶺) - 북청(北靑) - 자항역(慈航驛) - 제인관(濟仁館) - 후치령(厚峙嶺) - 배상포덕(裴上浦德) - 황수원(黃水阮) - 종포역(終浦驛) - 응덕령(鷹德嶺) - 응이역(熊耳驛) - 호린역(呼麟驛) - 허천강(虛川江) - 갑산(甲山)  
- 주례(朱禮) - 삼수부(三水府) - 영성령(零星嶺) - 소농보(小農堡) - 신갈파지(新加乙坡知) - 장진강(長津江) - 구갈파지(舊訖坡知) - 충천령(衝天嶺) - 송전참(松田站) - 후주(厚州) - 송전(松田) - 충천령(衝天嶺) - 구갈파지(舊訖坡知) - 장진강(長津江) - 소농보(小農堡) - 나난진(羅暖鎭) - 장령(長嶺) - 인차외(仁遮外) - 허천강(虛川江) - 혜산령(惠山嶺) - 오시천(五是川) - 백덕령(百德嶺) - 검천(劍川) - 서수라덕(西水羅德) - 곤장우(棍杖隅) - 자포수(自浦水) - 임연수(臨淵水) - 허항령(虛項嶺) - 삼지연(三池淵) - 장파(長坡) - 증산(甌山) - 노은동산(魯隱東山) - 소홍단수(小紅丹水) - 대홍단수(大紅丹水) - 임강대(臨江臺) - 박하천(朴下川) - 산양령(山羊嶺) - 무산부(茂山府) - 박하천(朴下川) - 산양령(山羊嶺) - 무산부(茂山府) - 풍산진(豊山鎭) - 불하진(豊下鎭) - 회령부(會寧府) - 고령진(高嶺鎭) - 방원진(防垣鎭) - 종성부(鍾城府) - 동관진(潼關鎭) - 영달진(永達鎭) - 유원진(柔遠鎭) - 온성부(穩城府) - 미진진(美錢鎭) - 황척과보(黃拓坡堡) - 훈융진(訓戎鎭) - 경원부(慶源府) - 안원보(安原堡) - 건원보(乾原堡) - 아산진(阿山鎭) - 무이진(撫夷鎭) - 경흥부(慶興府) - 두리산(斗里山) - 아산진(阿山鎭) - 건원보(乾原堡)

다음으로,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에 나타난 경로를 살펴보자. 박권은 1712년(숙종 38) 3월 17일부터 서울에 되돌아온 7월 13일까지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3월 17일 청나라 사신의 접반사로 임명받고, 3월 24일 조정에 와서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출발하여 동교(東郊, 북정록에서는 동대문 밖 의막)에 묵고, 동교에서 새벽(25일)에 출발한다. 박권 역시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며, 돌아오는 도중 금강산에 들르고, 7월 13일 양문(梁文)에 도착함으로써 여행 기록을 끝내고 있다. 총 이동기간은 107일이다.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교(東郊) - 양주(楊州) 녹양역(綠楊驛) - 포천(抱川) - 영평(永平) - 철원(鐵原) - 김화(金化) - 금성(金城) - 창도역(昌道驛) - 회양(淮陽) - 철령(鐵嶺) - 고산역(高山驛) - 덕원(德源) - 문천(文川) - 고원(高原) - 영흥(永興) - 정평(定平) - 초원참(草原站) - 함흥(咸興) - 덕산참(德山站) - 함관령(咸關嶺) - 홍원현(洪原縣) - 평포(平浦) - 북청(北靑) - 자항참(紫航站) - 제인참(濟仁站) - 후치령(厚峙嶺) - 황수원(黃水院) - 종포참(從浦站) - 옹구참(熊丘站) - 호린참(呼麟站) - 허천강(虛川江) - 갑산(甲山) - 주례참(朱禮站) - 오목진(吾木津) - 삼수부(三水府) - 영성령(零星嶺) - 소농보(小農堡) - 신갈파지(新架坡知) - 장진강(長津江) - 구갈파지(舊架坡知) - 충천령(衝天嶺) - 송전(松田) - 후주(厚州) - 송전(松田) - 충천령(衝天嶺) - 구갈파지(舊架坡知) - 신갈파지(新架坡知) - 나난(羅暖) - 장령(長嶺) - 인차외(仁遮外) - 회동(灰洞)고개 - 허천강(虛川江) - 혜산(惠山) - 오시천(吾時川) - 백덕령(栢德嶺) - 신대신수(申大信水) - 검천(劔川) - 서수라덕(西水羅德) - 자포(自浦) - 임연수(臨淵水) - 허항령(虛項嶺) - 장파(長坡) - 천평(天坪) - 홍단(紅丹) - 노은동산(盧隱東山) - 풍과(豊坡) - 어윤강(魚潤江) - 임강대(臨江臺) - 박하천(朴下川) - 무산(茂山) - 양영보(梁永堡) - 풍산진(豊山鎭) - 불하진(豊下鎭) - 회령부(會寧府) - 고령진(高嶺鎭) - 방원보(防垣堡) - 종성부(鍾城府) - 동관(潼關) - 영달보(永達堡) - 황척보(黃拓堡) - 경원부(慶源府) - 건원보(乾原堡) - 아산진(阿山鎭) - 아오지(阿吾地) - 경흥부(慶興府) - 아산보(阿山堡) - 건원보(乾原堡) - 안원보(安原堡) - 구건원(舊乾元) - 북행영(北行營) - 부계(涪溪) - 회령부(會寧府) - 고풍산(古豊山) - 무산령(茂山

峯) - 수성참(輸城站) - 경성(鏡城) - 영강참(永康站) - 어랑포(漁郎浦) - 무계(武溪) - 명창(明倉) - 명천부(明川府) - 천덕(泉德) - 문암(門岩) - 아간창(阿澗倉) - 임명창(臨溟倉) - 성진(城津) - 마천령(摩天嶺) - 단천(端川) - 마운령(磨雲嶺) - 이성(利城) - 거산참(居山站) - 북청(北靑) - 평포(平浦) - 홍원(洪原) - 함관령(咸關嶺) - 덕산참(德山站) - 함흥(咸興) - 정평(定平) - 초원(草原) - 영흥부(永興府) - 고원(高原) - 문천(文川) - 덕원(德源) - 학포(鶴浦) - 흡곡(歙谷) - 통천(通川) - 금강산(金剛山) - 신원(新院) - 통구참(通溝站) - 창도참(昌道站) - 금성(金城) - 김화(金化) - 풍전(豐田) - 양문(梁文)

홍세대의 「백두산기(白頭山記)」는 홍세대가 김경문(金慶門)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1712년(숙종 38)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4월 29일 김경문이 천여 리의 변경으로 가서 삼수(三水)의 연연(蓮淵)에서 목극등과 만나는 기록부터 시작하여 5월 11일 백두산의 정상에 도달하며, 다음날인 5월 12일 정계비를 세우고 무산으로 돌아온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총 이동기간은 13일이며,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수(三水) - 구가진(舊茄鎭) - 장령(長嶺) - 허천강(虛川江) - 혜산진(惠山鎭) - 오시천(五時川) - 백산(柏山) - 백덕(柏德) - 곤장(昆長) - 화피덕(樺皮德) - 검천(劍川) - 한덕립지당(韓德立支當) - 백두산 정상에 도달 - 정계비(세움) - 무산(茂山)

이의철은 「백두산기(白頭山記)」에서 1751년(영조 27) 5월 24일부터 윤 5월 3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5월 24일 갑산부(甲山府)를 출발하여 5월 28일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윤 5월 3일 다시 갑산(甲山)으로 돌아온 9일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산부(甲山府) - 동인령(同仁嶺) - 운충진(雲寵鎭) - 오시천(吾是川) - 백덕령(柏德嶺) - 서소라령(西小羅嶺:西水羅德) - 검천(劍川) - 심포(深浦) - 자개령(自介嶺) - 임어수(林魚水) - 허항령(虛項嶺) - 삼지(三池) - 천회참(泉會站) - 연지봉(臙脂峰) - 백두산 정계비(白頭山 定界碑) - 백두산 천지(大池) - 임어수(林魚水) - 자개령(自介嶺) - 심포(深浦) - 검천(劍川) - 오시천(吾是川) - 혜산진(惠山鎭) - 운충진(雲寵鎭) - 동인진(同仁鎭) - 갑산(甲山)

박종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은 1764년(영조 40)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18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5월 14일 출발하여 비촌(碑村), 주촌(酒村)을 지나 경성(鏡城) 성내에서 머무르고 다음날 백두산을 향해 출발한다. 그리고 5월 23일 백두산 정상에 오른다. 6월 1일 다시 경성(鏡城)에 도착함으로써 백두산 기행 경로는 끝이 나고 온촌(溫村) 당숙부 댁에 도착한다. 6월 2일 경성 어랑면 지방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서 모든 일정이 끝을 맺는다.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鏡城) - 수창(輸倉) - 부령(富寧) - 차유령(車踰峯) 고개 - 무산(茂山) - 산양암(山羊巖) - 남하창(南下倉) - 박하천(博下泉) - 임강대(臨江臺) - 삼산(三山) - 풍과(豐坡) - 소홍단수(小紅丹水) - 석류계덕(石留憩德) - 장과(長坡) - 녹운동산(綠雲東山) - 대홍단수(大紅丹水) - 작봉(鵲峯) - 반교(半橋) - 삼태봉(三台峯) - 귀룡소(鬼隴所) - 삼지(三池) - 천수동(泉水洞) - 포석동(浦石洞) - 연지봉(臙脂峰) - 백두산 정계비(白頭山 定界碑) - 백두산 정상에 오름 - 연지봉(臙脂峰) - 포석동(浦石洞) - 삼지연(三池淵) - 반교(半橋) - 장과(長坡) - 소홍단수(小紅丹水) - 풍과(豐坡) - 삼산(三山) - 하창(下倉) - 무산(茂山) - 폐무산(廢茂山) - 부령(富寧) - 수참(輸站) - 경성(鏡城) - 온촌(溫村) - 방평(方坪) - 어랑면 지방(집)으로 돌아옴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는 1766(영조 42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그는 6월 10일 갑산(甲山)에서 출발하여 6월 14일 백두산에 오른다. 그리고 6월 16일 운총(雲籠)에 이름으로써 끝을 맺는다.

갑산(甲山) - 삼봉(杉峯) - 동인진(同仁鎭) - 운총(雲籠) - 은사문령(銀沙門嶺) - 오시천(五時川) - 보다산(寶多山) - 나향포(羅巷浦) - 신대신천(申大新川) -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검천(劍川) - 간산봉(良山峰) - 곤장평(昆長坪) - 심포(深浦) - 구현(狗峴) - 자포(滋浦) - 판막(板幕) - 임어수(林魚水) - 허항령(虛項嶺) - 삼지연(三池淵) - 천수(泉水) - 연지봉(臙脂峰) - 백산(白山) - 백두산 정계비(白頭山 定界碑) - 백두산 천지(大池) - 천수(泉水) - 삼지(三池) - 자포(自浦) - 검천(劍川) -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운총(雲籠)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는 1885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기행 여정을 기록하였다. 1885년 8월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이중하가 9월 회령(會寧)에서 출발하여 10월 6일 무산(茂山)에 도착한다. 10월 18일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져 있는 곳에 이르며 10월 27일 무산부로 돌아옴으로써 마무리 된다. 22일 동안 이동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령(會寧) - 무산(茂山) - 삼하강구(三下江口) - 장과(長坡) - 수서(水西) - 직동(直洞) - 장산령(長山嶺) - 가척봉(加隲峯) - 절과총수(折把總水) - 삼포(杉浦) - 이석포(裡石浦) - 대각봉(大角峯) - 백두산 정계비(白頭山 定界碑) - 가차을봉(可次乙峯) - 수봉(豎峯) - 신무충(申武忠) - 가을척봉(加乙隲峯) - 직동(直洞) - 장과(長坡) - 무산부(茂山府)

## 2. 고지도에 복원한 백두산 기행로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로’에서는 김지남, 박권, 홍세태, 이의철, 박종, 서명응, 이중하의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백두산 기행로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 본 백두산 기행로는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로를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 그 당시 기행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따른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백두산 기행로를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고지도를 활용하였다.

고지도에 백두산 기행자들의 백두산 기행로를 고지도에 표시해 봄으로써, 그들이 백두산으로 가면서 거친 지점들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7명의 경로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기행로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 고지도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이다.

《대동여지도》는 내용상으로는 15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편찬되었던 지지(地誌)에 기초하여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록함은 물론, 지도학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도 발달의 성과를 종합한 지도였다.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군현지도, 방안지도, 목판지도, 절첩식지도, 휴대용지도 등 관청과 민간에서 이루어진 지도 성과를 종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척지도의 두 계열, 즉 18세기 이후 민간에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전국지도·도별지도와, 국가와 관청이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일목요연한 대축척 전국 지도를 만든 점이다. 《대동여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중에서 가장 지도학적으로 우수한 지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도 내의 글씨를 줄이고, 표현 내용을 기호화하는 방식을 확립해 현대 지도와 같은 세련된 형식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김정호는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하

는 ‘지도표’라는 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지명에 있어 공통되는 어미(語尾)를 지도에는 기록하지 않아 글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때문에 《대동여지도》에는 총 11,760여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글자의 수를 줄인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특히 고현(古縣), 고진보(古鎭堡), 고산성(古山城) 등 당시에는 이미 사라진 역사적인 흔적을 《대동여지도》처럼 상세히 기록한 지도는 없다.<sup>85)</sup>

《대동여지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소축적으로 줄여서 만든 것으로 축척은 약 1:92만 정도이다. 이 지도는 제작자와 발간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축약한 소형 전도이다.<sup>86)</sup>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전도》를 선택하고 활용하여 그들의 백두산 기행로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행로를 시각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Adobe Photoshop 7.0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분 촬영한 대동여지도를 합성해 연결하고 축소하였으며,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전도》에 각각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백두산 기행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백두산 부근까지 기행한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와 기행로가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에 해당하는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용·이중하의 두 경우로 나누어 고지도를 선택하였다.

《대동여지도》는 전체 크기 세로 6.6m 가로 4.2m의 대형지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축소하여 사용한다고 하여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백두산 부근까지의 경로를 한 장에 표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울(의막(依幕), 동교(東郊))에서 출발한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에는 《대동여지도》를 소축적으로 줄여 만든 《대동여지전도》를 축소하여 경로를 표시하였다.

---

85) 양보경, 2004, 전계논문, p.51.

86) 양보경, 2004, 전계논문,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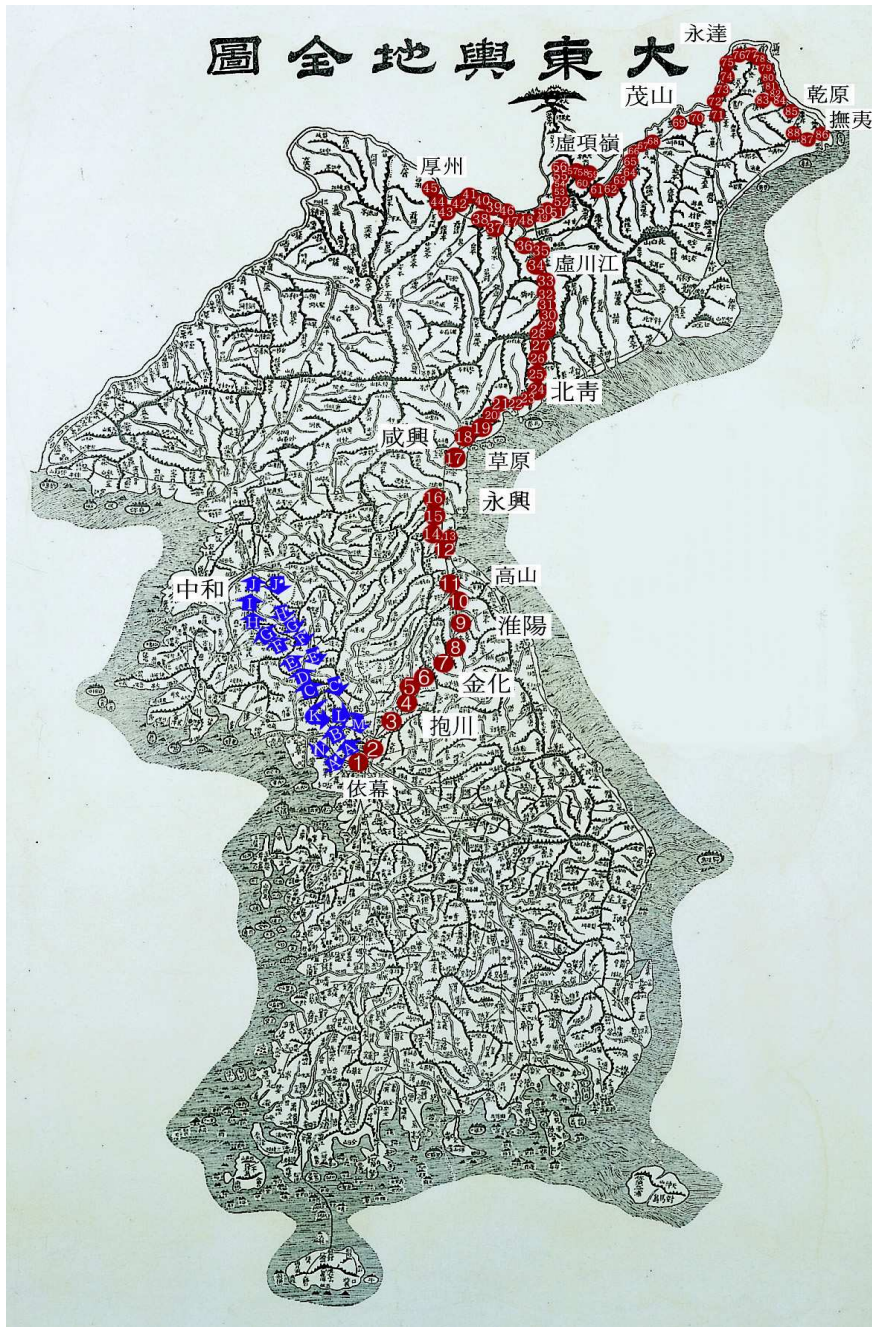
다음으로, 삼수(三水)에서 출발하여 무산(茂山)에서 끝나는 김경문의 경로와 갑산부(甲山府)에서 출발하여 다시 갑산부(甲山府)에서 끝나는 이의철, 경성(鏡城)에서 출발하여 다시 경성(鏡城)으로 돌아오는 박종, 갑산(甲山)에서 출발하여 운총(雲籠)으로 돌아오는 서명응, 회령(會寧)에서 출발하여 무산부(茂山府)로 돌아오는 이중하까지 5명의 경우에는 《대동여지도》의 함경도와 평안도의 일부분을 축소하여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동여지도》에 기행로를 복원하는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지남은 의막(依幕)에서 출발하여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고, 1712년 6월 2일 건원보(乾原堡)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마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대동여지전도》에 그 경로를 표시하였다.

박권 역시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박권과 함께 간 김지남의 경우 건원보(乾原堡)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마치는 반면, 박권의 경우에는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고 양문(梁文)까지 돌아오는 경로까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 가는 길과 귀환로를 따로 표시하였다. 박권도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했으므로 도착지점 중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는 경로와 귀환로의 기준점으로 지정하여 표시하였다.

고지도 상에는 일일이 지명을 다 넣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거쳐 간 지점을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하였으며 숫자에 해당하는 지명을 표로 작성하였다. 김지남의 경우 58 페이지의 <표-7>을 참고하면 그가 거쳐 간 지점의 지명을 알 수 있으며, 박권의 경우에도 <표-8>을 참고하면 지명을 알 수 있다.



<그림-1> 김지남의 백두산 기행로

주: 1) 알파벳과 숫자는 순서대로 거쳐 간 지점을 나타낸다. 이하 그림 2~12 동일.

2) 해당지명은 <표-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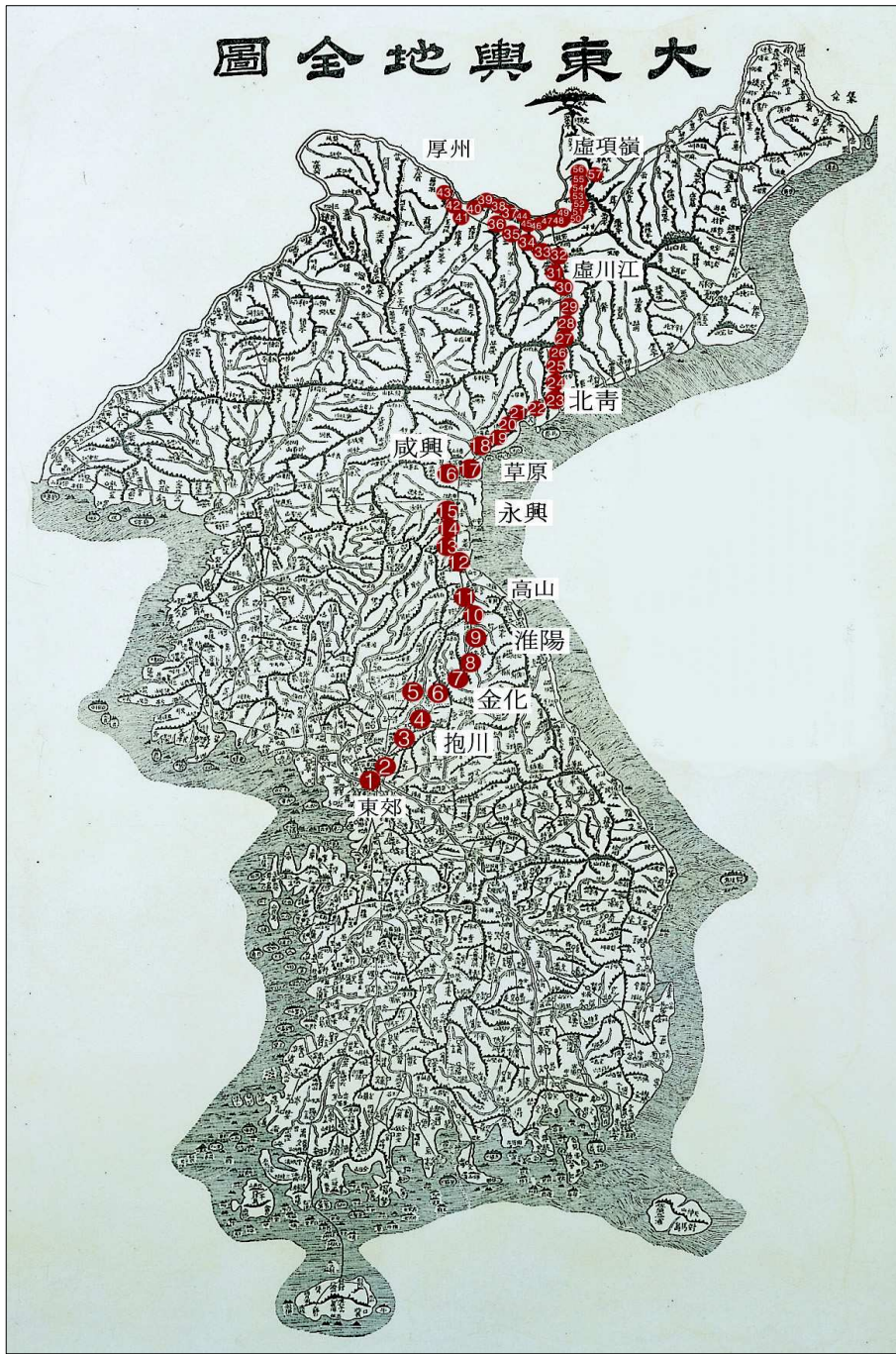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이하 그림 2~12 동일.

<표-7> 김지남의 백두산 기행로

이 름	김 지 남
기 행 로	<p>A 사현(沙峴)·여현(礪峴)의 선산 - B 임진강(臨津江) - C 금천군(金川郡) - D 해서역(海西驛) - E 평산부(平山府) - F 서흥현(瑞興縣) - G 검수참(劍水站) - H 봉산군(鳳山郡) - I 황주목(黃州牧) - J 중화부(中和府) - J' 중화(中和) - H' 봉산군(鳳山郡) - G' 검수참(劍水站) - F' 서흥(瑞興) - E' 평산(平山) - C' 금천(金川) - K 개성(開城) - L 장단(長湍) - M 파주(坡州) - N 고양(高陽) - A' 여현(礪峴)</p> <p>1 동대문 밖 의막(依幕) - 2 양주 녹양역(綠楊驛) - 3 포천현(抱川縣) - 4 영평(永平) - 5 풍전역(豊田驛) - 6 김화현(金化縣) - 7 금성현(金城縣) - 8 창도역(昌道驛) - 9 회양(淮陽) - 10 철령(鐵嶺) - 11 고산역(高山驛) - 12 덕원부(德源府) - 13 원산포(元山浦) - 14 문천군(文川郡) - 15 고원군(高原郡) - 16 영흥부(永興府) - 17 초원역(草原驛) - 18 함흥(咸興) - 19 덕산역(德山驛) - 20 함관령(函關嶺) - 21 홍원(洪原) - 22 평포(平浦) - 23 삼관령(三關嶺) - 24 북청(北靑) - 25 자항역(慈航驛) - 26 제인관(濟仁館) - 27 후치령(厚峙嶺) - 28 배상포덕(裵上浦德) - 29 황수원(黃水阮) - 30 종포역(終浦驛) - 31 응덕령(鷹德嶺) - 32 응이역(熊耳驛) - 33 호린역(呼麟驛) - 34 허천강(虛川江) - 35 갑산(甲山) - 36 주례(朱禮) - 37 삼수부(三水府) - 38 영성령(零星嶺) - 39 소농보(小農堡) - 40 신갈파지(新加乙坡知) - 41 장진강(長津江) - 42 구갈파지(舊架坡知) - 43 충천령(衝天嶺) - 44 송전참(松田站) - 45 후주(厚州) - 44 송진(松田) - 43 충천령(衝天嶺) - 42 구갈파지(舊架坡知) - 41 장진강(長津江) - 39 소농보(小農堡) - 46 나난진(羅暖鎭) - 47 장령(長嶺) - 48 인차외(仁遮外) - 49 허천강(虛川江) - 50 혜산령(惠山嶺) - 51 오시천(五是川) - 52 백덕령(百德嶺) - 53 검천(劍川) - 54 서수라덕(西水羅德) - 55 곤장우(棍杖隅) - 56 자포수(自浦水) - 57 임연수(臨淵水) - 58 허항령(虛項嶺) - 59 삼지연(三池淵) - 60 장파(長坡) - 61 증산(甞山) - 62 노은동산(魯隱東山) - 63 소홍단수(小紅丹水) - 64 대홍단수(大紅丹水) - 65 임강대(臨江臺) - 66 박하천(朴下川) - 67 산양령(山羊嶺) - 68 무산부(茂山府) - 66 박하천(朴下川) - 67 산양령(山羊嶺) - 68 무산부(茂山府) - 69 풍산진(豊山鎭) - 70 불하진(弗下鎭) - 71 회령부(會寧府) - 72 고령진(高嶺鎭) - 73 방원진(防垣鎭) - 74 중성부(鍾城府) - 75 동관진(潼關鎭) - 76 영달진(永達鎭) - 77 유연진(柔遠鎭) - 78 온성부(穩城府) - 79 미전진(美錢鎭) - 80 황척과보(黃拓坡堡) - 81 훈융진(訓戎鎭) - 82 경원부(會寧府) - 83 안원보(安原堡) - 84 건원보(乾原堡) - 85 아산진(阿山鎭) - 86 무이진(撫夷鎭) - 87 경흥부(慶興府) - 88 두리산(斗里山) - 85 아산진(阿山鎭) - 84 건원보(乾原堡)</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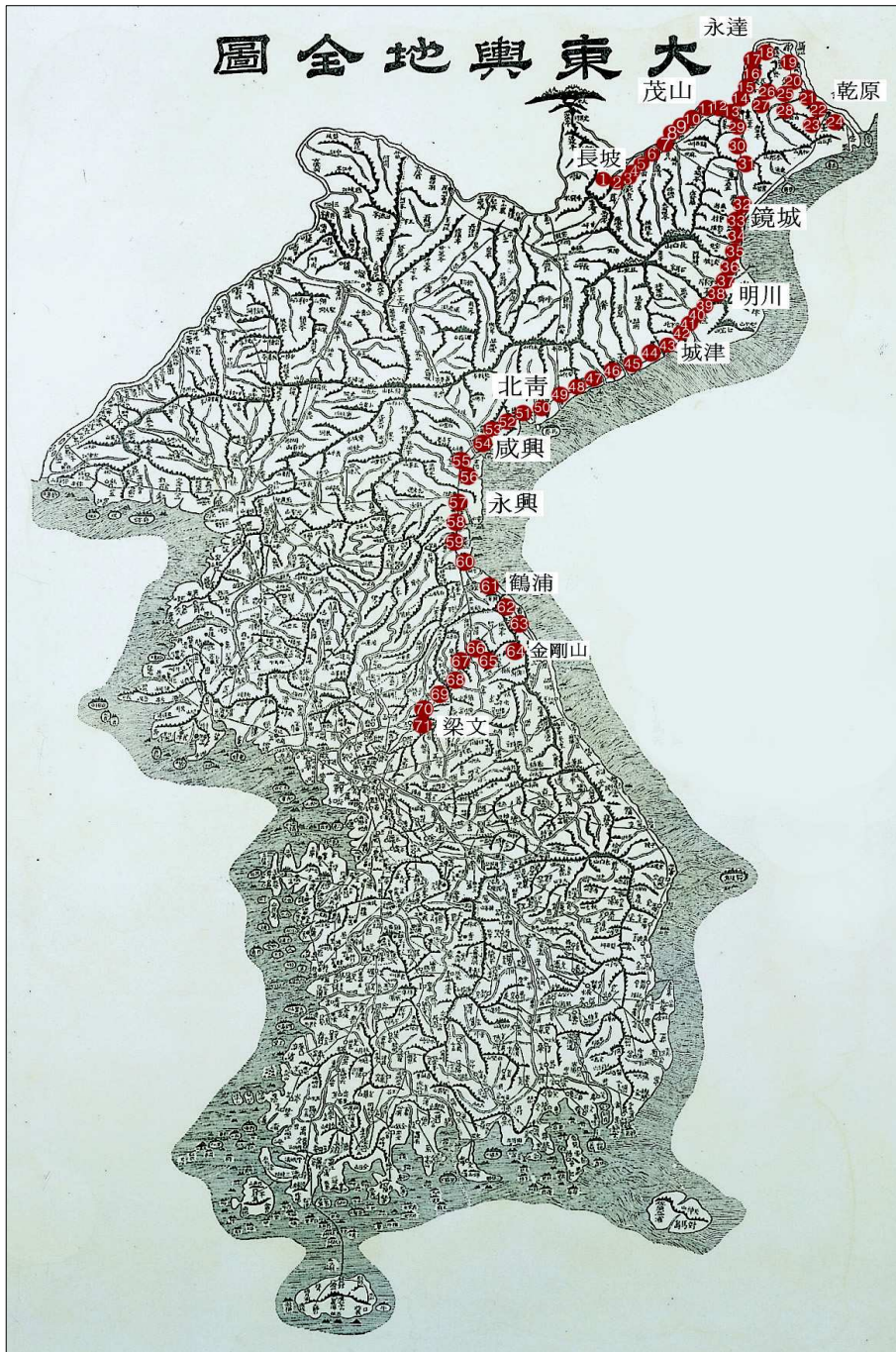
주 : 지명 앞의 알파벳과 숫자는 <그림-1>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그림-2> 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주: 해당지명은 <표-8> 참고.



<그림-3> 박권의 귀환로

주: 해당지명은 <표-8> 참고.

<표-8> 박권의 백두산 기행로

이름	박 권
가는 경로	1 동교(東郊) - 2 양주(楊州) 녹양역(綠楊驛) - 3 포천(抱川) - 4 영평(永平) - 5 철원(鐵原) - 6 김화(金化) - 7 금성(金城) - 8 창도역(昌道驛) - 9 회양(淮陽) - 10 철령(鐵嶺) - 11 고산역(高山驛) - 12 덕원(德源) - 13 문천(文川) - 14 고원(高原) - 15 영흥(永興) - 16 정평(定平) - 17 초원참(草原站) - 18 함흥(咸興) - 19 덕산참(德山站) - 20 함관령(咸關嶺) - 21 홍원현(洪原縣) - 22 평포(平浦) - 23 북청(北靑) - 24 자항참(紫航站) - 25 제인참(濟仁站) - 26 후치령(厚峙嶺) - 27 황수원(黃水院) - 28 종포참(從浦站) - 29 옹구참(熊丘站) - 30 호린참(呼麟站) - 31 허천강(虛川江) - 32 갑산(甲山) - 33 주례참(朱禮站) - 34 오목진(吾木津) - 35 삼수부(三水府) - 36 영성령(零星嶺) - 37 소농보(小農堡) - 38 신갈과지(新架坡知) - 39 장진강(長津江) - 40 구갈과지(舊架坡知) - 41 충천령(衝天嶺) - 42 송전(松田) - 43 후주(厚州) - 42 송전(松田) - 41 충천령(衝天嶺) - 40 구갈과지(舊架坡知) - 38 신갈과지(新架坡知) - 44 나난(羅暖) - 45 장령(長嶺) - 46 인차외 - 47 회동(灰洞)고개 - 48 허천강(虛川江) - 49 혜산(惠山) - 50 오시천(吾時川) - 51 백덕령(栢德嶺) - 52 신대신수(申大信水) - 53 검천(劍川) - 54 서수라덕(西水羅德) - 55 자포(自浦) - 56 임연수(臨淵水) - 57 허항령(虛項嶺)
귀 환 로	1 장파(長坡) - 2 천평(天坪) - 3 홍단(紅丹) - 4 노은동산(盧隱東山) - 5 풍파(豊坡) - 6 어윤강(魚潤江) - 7 임강대(臨江臺) - 8 박하천(朴下川) - 9 무산(茂山) - 10 양영보(梁永堡) - 11 풍산진(豊山鎭) - 12 불하진(豊下鎭) - 13 회령부(會寧府) - 14 고령진(高嶺鎭) - 15 방원보(防垣堡) - 16 종성부(鍾城府) - 17 동관(潼關) - 18 영달보(永達堡) - 19 황척보(黃拓堡) - 20 경원부(慶源府) - 21 건원보(乾原堡) - 22 아산진(阿山鎭) - 23 아오지(阿吾地) - 24 경흥부(慶興府) - 22 아산보(阿山堡) - 21 건원보(乾原堡) - 25 안원보(安原堡) - 26 구건원(舊乾元) - 27 북행영(北行營) - 28 부계(涪溪) - 29 회령부(會寧府) - 30 고평산(古豊山) - 31 무산령(茂山峯) - 32 수성참(輸城站) - 33 경성(鏡城) - 34 영강참(永康站) - 35 어랑포(漁郎浦) - 36 무계(武溪) - 37 명창(明倉) - 38 명천부(明川府) - 39 천덕(泉德) - 40 문암(門岩) - 41 아간창(阿澗倉) - 42 임명창(臨溟倉) - 43 성진(城津) - 44 마천령(摩天嶺) - 45 단천(端川) - 46 마운령(磨雲嶺) - 47 이성(利城) - 48 거산참(居山站) - 49 북청(北靑) - 50 평포(平浦) - 51 홍원(洪原) - 52 함관령(咸關嶺) - 53 덕산참(德山站) - 54 함흥(咸興) - 55 정평(定平) - 56 초원(草原) - 57 영흥부(永興府) - 58 고원(高原) - 59 문천(文川) - 60 덕원(德源) - 61 학포(鶴浦) - 62 흡곡(歙谷) - 63 통천(通川) - 64 금강산(金剛山) - 65 신원(新院) - 66 통구참(通溝站) - 67 창도참(昌道站) - 68 금성(金城) - 69 김화(金化) - 70 풍전(豊田) - 71 양문(梁文)

주 : 지명 앞의 숫자는 <그림-2>와 <그림-3>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다음은 《대동여지도》의 함경도와 평안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복원한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백두산 기행로이다.

고지도 상에 그들이 거쳐 간 지점을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하였고, 역시 65페이지의 <표-9>를 참고하면 숫자가 나타내는 지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4>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 나타난 김경문의 백두산 기행로

주: 해당지명은 <표-9> 참고.



<그림-5> 이의철의 백두산 기행로

주: 해당지명은 <표-9> 참고.



<그림-6> 박종의 백두산 기행로

주: 해당지명은 <표-9> 참고.



<그림-7> 서명응의 백두산 기행로

주: 해당지명은 <표-9> 참고.



<그림-8> 이중하의 백두산 기행로

주: 해당지명은 <표-9> 참고.

<표-9> 김경문 · 이의철 · 박종 · 서명웅 · 이중하의 백두산 기행로

이름	가는 경로	귀환로
김 경 문	1 삼수(三水) - 2 구가진(舊茄鎭) - 3 장령(長嶺) - 4 허천강(虛川江) - 5 혜산진(惠山鎭) - 6 오시천(五時川) - 7 백산(柏山) - 8 백덕(柏德) - 9 곤장(昆長) - 10 화피덕(樺皮德) - 11 검천(劍川) - 12 한덕립지당(韓德立支當) - 13 백두산 정상	14 정계비(세움) - 15 무산(茂山)
이 의 철	1 갑산부(甲山府) - 2 동인령(同仁嶺) - 3 운총진(雲籠鎭) - 4 오시천(吾是川) - 5 백덕령(柏德嶺) - 6 서소라령(西小羅嶺:西水羅德) - 7 검천(劍川) - 8 심포(深浦) - 9 자개령(自介嶺) - 10 임어수(林魚水) - 11 허항령(虛項嶺) - 12 삼지(三池) - 13 천회참(泉會站) - 14 연지방(臙脂峰) - 15 정계비(定界碑) - 16 백두산 천지(大池)	16 백두산 천지(大池) - 10 임어수(林魚水) - 9 자개령(自介嶺) - 8 심포(深浦) - 7 검천(劍川) - 4 오시천(吾是川) - A 혜산진(惠山鎭) - 3 운총진(雲籠鎭) - 2 동인진(同仁鎭) - 1 갑산(甲山)
박 종	1 경성(鏡城) - 2 수창(輸倉) - 3 부령(富寧) - 4 차유령(車踰峯) 고개 - 5 무산(茂山) - 6 산양암(山羊巖) - 7 남하창(南下倉) - 8 박하천(博下泉) - 9 임강대(臨江臺) - 10 삼산(三山) - 11 풍파(豊坡) - 12 소홍단수(小紅丹水) - 13 석류계덕(石留憩德) - 14 장과(長坡) - 15 녹운동산(綠雲東山) - 16 대홍단수(大紅丹水) - 17 작봉(鵲峯) - 18 반교(半橋) - 19 삼태봉(三台峯) - 20 귀룡소(鬼隴所) - 21 삼지(三池) - 22 천수동(泉水洞) - 23 포석동(浦石洞) - 24 연지방(臙脂峰) - 25 정계비(定界碑) - 26 백두산 정상	26 백두산 정상 - 24 연지방(臙脂峰) - 23 포석동(浦石洞) - 21 삼지연(三池淵) - 18 반교(半橋) - 14 장과(長坡) - 12 소홍단수(小紅丹水) - 11 풍파(豊坡) - 10 삼산(三山) - 7 하창(下倉) - 5 무산(茂山) - A 폐무산(廢茂山) - 3 부령(富寧) - 2 수창(輸倉) - 1 경성(鏡城)
서 명 웅	1 갑산(甲山) - 2 삼봉(杉峯) - 3 동인진(同仁鎭) - 4 운총(雲籠) - 5 은사문령(銀沙門嶺) - 6 오시천(五時川) - 7 보다산(寶多山) - 8 나항포(羅巷浦) - 9 신대신천(申大新川) - 10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11 검천(劍川) - 12 간산봉(艮山峰) - 13 곤장평(昆長坪) - 14 심포(深浦) - 15 구현(狗峴) - 16 자포(滋浦) - 17 판막(板幕) - 18 임어수(林魚水) - 19 허항령(虛項嶺) - 20 삼지연(三池淵) - 21 천수(泉水) - 22 연지방(臙脂峰) - 23 백산(白山) - 24 정계비(定界碑) - 25 백두산 천지(大池)	25 백두산 천지(大池) - 21 천수(泉水) - 20 삼지(三池) - 16 자포(自浦) - 11 검천(劍川) - 10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4 운총(雲籠)
이 중 하	1 회령(會寧) - 2 무산(茂山) - 3 삼하강구(三下江口) - 4 장과(長坡) - 5 수서(水西) - 6 직동(直洞) - 7 장산령(長山嶺) - 8 가척봉(加陟峯) - 9 절과총수(折把攄水) - 10 삼포(杉浦) - 11 이석포(裡石浦) - 12 대각봉(大角峯) - 13 정계비(定界碑)	13 정계비(定界碑) - A 가차을봉(可次乙峯) - B 수봉(豎峯) - C 신무충(申武忠) - 8 가을척봉(加乙陟峯) - 6 직동(直洞) - 4 장과(長坡) - 2 무산부(茂山府)

주 : 지명 앞의 숫자와 알파벳은 <그림-4, 5, 6, 7, 8>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 3. 백두산 기행로의 비교 분석

앞에서 살펴본 7명의 백두산 기행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동여지전도》에 김지남과 박권의 경로를 함께 표시하여 보았으며, 《대동여지도》에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 나타난 김경문의 경로와 이의철, 박종, 서명응, 이중하의 경로를 함께 표시하였다.






함께 표시할 때 백두산을 향하여 가는 길과 백두산을 기행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로를 따로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4장의 지도에 표시하였다.

개개인의 경로를 표시하고 동일하게 지난 부분을 비교해 보기 위해 다양한 기호를 선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7명의 기행로를 표시하는 데 쓰인 기호는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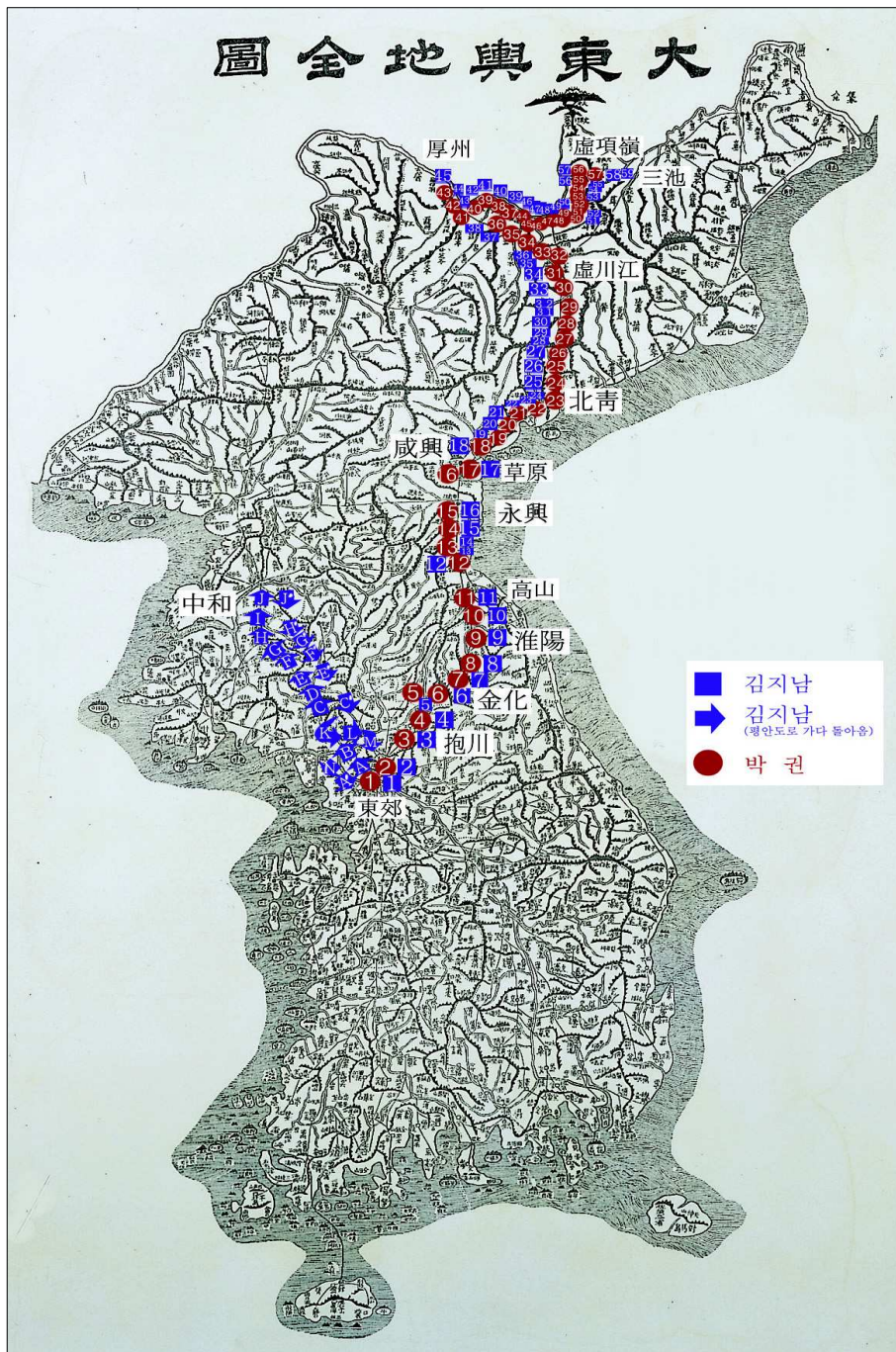
<표-10> 김지남·박권의 기행로 표시에 쓰인 기호

이 름	김 지 남	박 권
기 호		

<표-11>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기행로 표시에 쓰인 기호

이 름	김 경 문	이 의 철	박 종	서 명 응	이 중 하
기 호					

다음은 《대동여지전도》에 복원한 김지남과 박권의 백두산 기행로이다.



<그림-9> 김지남·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주: 해당지명은 <표-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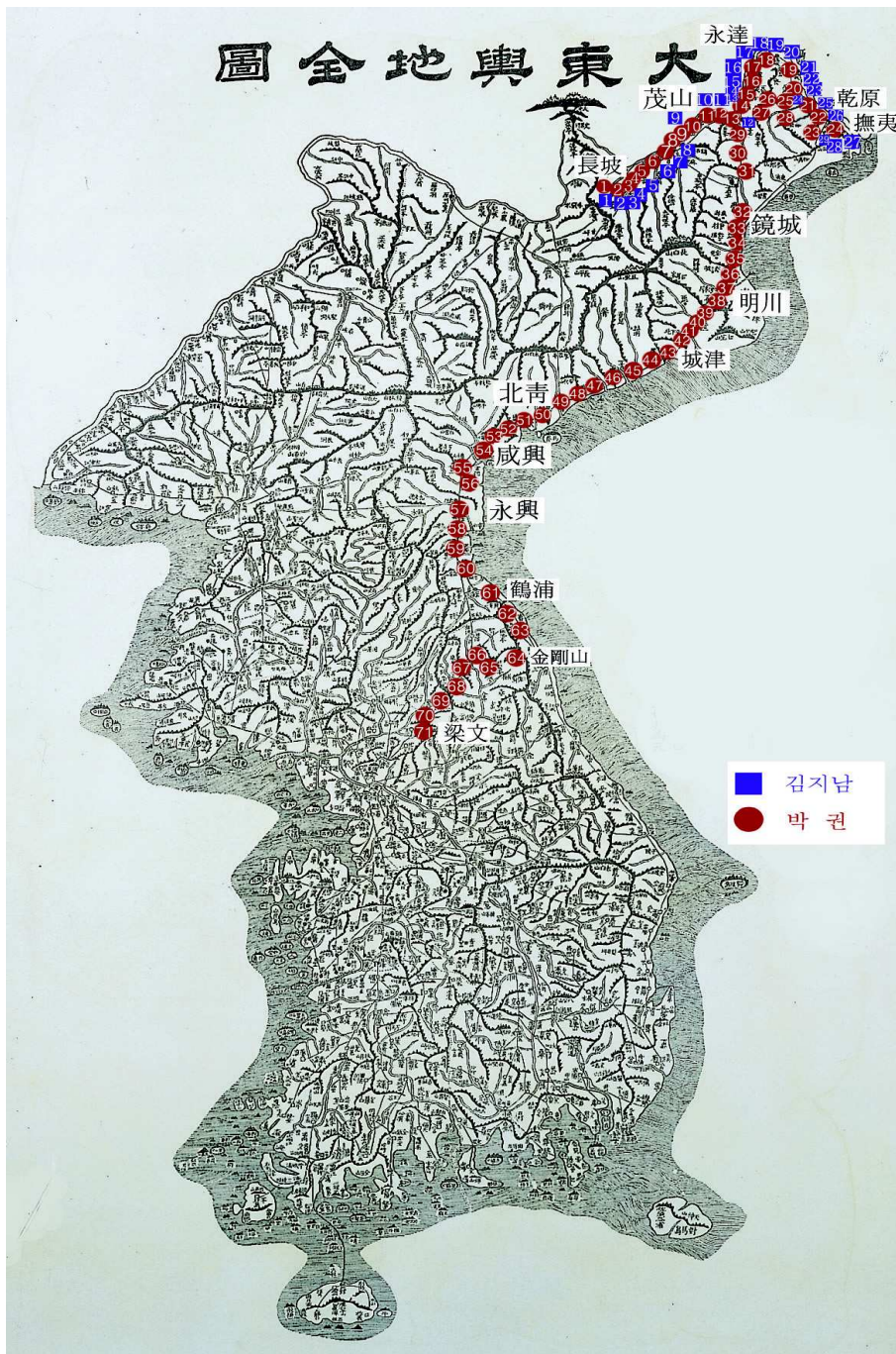
<표-12> 김지남·박권의 백두산 가는 경로

이름	이동 기간	가는 경로
김 지 남	1712년 2월 29일 ~ 1712년 3월 15일 (17일)	A 사현(沙峴)·여현(礪峴)의 천산 - B 임진강(臨津江) - C 금천군(金川郡) - D 해서역(海西驛) - E 평산부(平山府) - F 서흥현(瑞興縣) - G 검수참(劔水站) - H 봉산군(鳳山郡) - I 황주목(黃州牧) - J 중화부(中和府) - J' 중화(中和) - H' 봉산군(鳳山郡) - G' 검수참(劔水站) - F' 서흥(瑞興) - E' 평산(平山) - C' 금천(金川) - K 개성(開城) - L 장단(長湍) - M 파주(坡州) - N 고양(高陽) - A' 여현(礪峴)
	1712년 3월 25일 ~ 1712년 5월 10일 (45일)	1 동대문 밖 의막(依幕) - 2 양주 녹양역(綠楊驛) - 3 포천현(抱川縣) - 4 영평(永平) - 5 풍진역(豊田驛) - 6 김화현(金化縣) - 7 금성현(金城縣) - 8 창도역(昌道驛) - 9 회양(淮陽) - 10 철령(鐵嶺) - 11 고산역(高山驛) - 12 덕원부(德源府) - 13 원산포덕(元山浦) - 14 문천군(文川郡) - 15 고원군(高原郡) - 16 영흥부(永興府) - 17 초원역(草原驛) - 18 함흥(咸興) - 19 덕산역(德山驛) - 20 함관령(函關嶺) - 21 홍원(洪原) - 22 평포(平浦) - 23 삼관령(三關嶺) - 24 북청(北靑) - 25 자항역(慈航驛) - 26 제인관(濟仁館) - 27 후치령(厚峙嶺) - 28 배상포덕(裨上浦) - 29 황수원(黃水院) - 30 종포역(終浦驛) - 31 응덕령(鷹德嶺) - 32 응이역(熊耳驛) - 33 호린역(呼麟驛) - 34 허천강(虛川江) - 35 갑산(甲山) - 36 주례(朱禮) - 37 삼수부(三水府) - 38 영성령(零星嶺) - 39 소농보(小農堡) - 40 신갈파지(新加乙坡知) - 41 장진강(長津江) - 42 구갈파지(旧袞坡知) - 43 충천령(衝天嶺) - 44 송진참(松田站) - 45 후주(厚州) - 44 송전(松田) - 43 충천령(衝天嶺) - 42 구갈파지(旧袞坡知) - 41 장진강(長津江) - 39 소농보(小農堡) - 46 나난진(羅暖鎭) - 47 장령(長嶺) - 48 인차외(仁遮外) - 49 허천강(虛川江) - 50 혜산령(惠山嶺) - 51 오시천(吾時川) - 52 백덕령(百德嶺) - 53 검천(劔川) - 54 서수라덕(西水羅德) - 55 곤장우(棍杖隅) - 56 자포수(自浦水) - 57 임연수(臨淵水) - 58 허항령(虛項嶺) - 59 삼지연(三池淵)
박 권	1712년 3월 25일 ~ 1712년 5월 10일 (45일)	1 동교(東郊) - 2 양주(楊州) 녹양역(綠楊驛) - 3 포천(抱川) - 4 영평(永平) - 5 철원(鐵原) - 6 김화(金化) - 7 금성(金城) - 8 창도역(昌道驛) - 9 회양(淮陽) - 10 철령(鐵嶺) - 11 고산역(高山驛) - 12 덕원(德源) - 13 문천(文川) - 14 고원(高原) - 15 영흥(永興) - 16 정평(定平) - 17 초원참(草原站) - 18 함흥(咸興) - 19 덕산참(德山站) - 20 함관령(咸關嶺) - 21 홍원현(洪原縣) - 22 평포(平浦) - 23 북청(北靑) - 24 자항참(紫航站) - 25 제인참(濟仁站) - 26 후치령(厚峙嶺) - 27 황수원(黃水院) - 28 종포참(從浦站) - 29 응구참(熊丘站) - 30 호린참(呼麟站) - 31 허천강(虛川江) - 32 갑산(甲山) - 33 주례참(朱禮站) - 34 오목진(吾木津) - 35 삼수부(三水府) - 36 영성령(零星嶺) - 37 소농보(小農堡) - 38 신갈파지(新袞坡知) - 39 장진강(長津江) - 40 구갈파지(旧袞坡知) - 41 충천령(衝天嶺) - 42 송전(松田) - 43 후주(厚州) - 42 송전(松田) - 41 충천령(衝天嶺) - 40 구갈파지(旧袞坡知) - 38 신갈파지(新袞坡知) - 44 나난(羅暖) - 45 장령(長嶺) - 46 인차외(仁遮外) - 47 회동(灰洞)고개 - 48 허천강(虛川江) - 49 혜산(惠山) - 50 오시천(吾時川) - 51 백덕령(栢德嶺) - 52 신대신수(申大信水) - 53 검천(劔川) - 54 서수라덕(西水羅德) - 55 자포(自浦) - 56 임연수(臨淵水) - 57 허항령(虛項嶺)

주 : 1) 음영색 표시 지명은 기행로가 같은 김지남과 박권이 각각의 기행기에서 서로 기록하지 않은 지명이다.

2) 지명 앞의 알파벳과 숫자는 <그림-9>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그림-10> 김지남·박권의 귀환로

주: 해당지명은 <표-13> 참고.

<표-13> 김지남·박권의 귀환로

이름	이동 기간	귀환로
김지남	1712년 5월 10일~1712년 6월 2일 (22일)	1 장파(長坡) - 2 증산(甞山) - 3 노은동산(魯隱東山) - 4 소홍단수(小紅丹水) - 5 대홍단수(大紅丹水) - 6 임강대(臨江臺) - 7 박하천(朴下川) - 8 산양령(山羊嶺) - 9 무산부(茂山府) - 7 박하천(朴下川) - 8 산양령(山羊嶺) - 9 무산부(茂山府) - 10 풍산진(豐山鎭) - 11 불하진(漉下鎭) - 12 회령부(會寧府) - 13 고령진(高嶺鎭) - 14 방원진(防垣鎭) - 15 종성부(鍾城府) - 16 동관진(潼關鎭) - 17 영달진(永達鎭) - 18 유원진(柔遠鎭) - 19 온성부(穩城府) - 20 미진진(美鎭) - 21 황척과보(黃拓坡堡) - 22 훈음진(訓戎鎭) - 23 경원부(會寧府) - 24 안원보(安原堡) - 25 건원보(乾原堡) - 26 아산진(阿山鎭) - 27 무이진(撫夷鎭) - 28 경흥부(慶興府) - 29 두리산(斗里山) - 26 아산진(阿山鎭) - 25 건원보(乾原堡)
박권	1712년 5월 10일~1712년 7월 13일 (62일)	1 장파(長坡) - 2 천평(天坪) - 3 홍단(紅丹) - 4 노은동산(盧隱東山) - 5 풍파(豐坡) - 6 어윤강(魚潤江) - 7 임강대(臨江臺) - 8 박하천(朴下川) - 9 무산(茂山) - 10 양영보(梁永堡) - 11 풍산진(豐山鎭) - 12 불하진(漉下鎭) - 13 회령부(會寧府) - 14 고령진(高嶺鎭) - 15 방원보(防垣堡) - 16 종성부(鍾城府) - 17 동관(潼關) - 18 영달보(永達堡) - 19 황척보(黃拓堡) - 20 경원부(慶源府) - 21 건원보(乾原堡) - 22 아산진(阿山鎭) - 23 아오지(阿吾地) - 24 경흥부(慶興府) - 22 아산보(阿山堡) - 21 건원보(乾原堡) - 25 안원보(安原堡) - 26 구건원(舊乾元) - 27 북행영(北行營) - 28 부계(涪溪) - 29 회령부(會寧府) - 30 고평산(古豊山) - 31 무산령(茂山峯) - 32 수성참(輸城站) - 33 경성(鏡城) - 34 영강참(永康站) - 35 어랑포(漁郎浦) - 36 무계(武溪) - 37 명창(明倉) - 38 명천부(明川府) - 39 천덕(泉德) - 40 문암(門岩) - 41 아간창(阿澗倉) - 42 임명창(臨溟倉) - 43 성진(城津) - 44 마천령(摩天嶺) - 45 단천(端川) - 46 마운령(磨雲嶺) - 47 이성(利城) - 48 거산참(居山站) - 49 북청(北靑) - 50 평포(平浦) - 51 홍원(洪原) - 52 함관령(咸關嶺) - 53 덕산참(德山站) - 54 함흥(咸興) - 55 정평(定平) - 56 초원(草原) - 57 영흥부(永興府) - 58 고원(高原) - 59 문천(文川) - 60 덕원(德源) - 61 학포(鶴浦) - 62 흙곡(歙谷) - 63 통천(通川) - 64 금강산(金剛山) - 65 신원(新院) - 66 통구참(通溝站) - 67 창도참(昌道站) - 68 금성(金城) - 69 김화(金化) - 70 풍전(豊田) - 71 양문(梁文)

주 : 1) 음영색 표시 지명은 기행로가 같은 김지남과 박권이 각각의 기행기에서 서로 기록하지 않은 지명이다.  
 2) 지명 앞의 숫자는 <그림-10>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3) 이동소요기간은 출발일 제외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먼저 고지도에 복원한 김지남과 박권의 기행로를 살펴보자. 고지도에 복원할 때 백두산 가는 경로와 귀환로를 따로 표시하였는데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했으므로 도착지점 중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는 경로와 귀환로의 기준점으로 지정하여 표시하였다. 박권의 기행기

에는 허항령(虛項嶺)이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고, 김지남의 경우에는 허항령(虛項嶺)을 지나 삼지연(三池淵)까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허항령(虛項嶺)과 삼지연(三池淵)을 기준 지점으로 삼았다.

김지남과 박권은 함께 백두산으로 향한다. 즉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나라 간에 국경에 대한 논의가 행하여지고, 이때 박권은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파견된 청나라 사신 목극등의 접반사로, 김지남은 통역관의 자격으로 함께 백두산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박권과 김지남의 경로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이동 기간도 1712년 3월 25일부터 1712년 5월 10일까지의 총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김지남은 1712년 2월 24일 평안도로 가라는 명을 받고 2월 29일 새벽에 출발하여 3월 1일 중화부에 도착하지만, 3월 초6일 평안도가 아닌 함경도에서 목극등을 맞으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3월 24일 대궐에 가서 하직한다. 그리고 1712년 3월 25일 박권과 함께 출발한다. 때문에 1712년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17일 간의 경로가 추가로 나타난다.

또한 김지남의 경우에는 6월 2일 건원보(乾原堡)에 이르며, 6월 3일 청나라 사신과의 헤어짐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끝내고 있는 반면, 박권은 그 이후 7월 13일 양문(梁文)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지남은 1712년 5월 10일 장파(長坡)를 출발하여 1712년 6월 2일 건원보(乾原堡)에 이르기까지 22일간의 기행기간을 가지고, 박권의 경우 1712년 5월 10일 장파(長坡)에서 출발하여 1712년 7월 13일 양문(梁文)에 이르기까지 62일간의 기행기간을 가진다.

즉, 김지남은 1712년 6월 3일까지만 기록하고 있으므로, 1712년 6월 4일부터는 박권의 기행로만 알 수 있고, 6월 3일 건원보(乾原堡)까지의 기행로는 김지남과 박권이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지남과 박권의 6월 3일까지의 기행로에서,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에는 ‘풍전역(豊田驛)·원산포(元山浦)·삼관령(三關嶺)·배상포덕(裴

上浦德)· 응덕령(鷹德嶺)· 응이역(熊耳驛)· 곤장우(棍杖隅)· 삼지연(三池淵)· 증산(甌山)· 소홍단수(小紅丹水)· 대홍단수(大紅丹水)· 산양령(山羊嶺)· 유원진(柔遠鎭)· 온성부(穩城府)· 미전진(美錢鎭)· 훈융진(訓戎鎭)· 무이진(撫夷鎭)· 두리산(斗里山)'을 기록하고 있으나,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에는 이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김지남의 기록에는 없는 지명은 '철원(鐵原)· 정평(定平)· 옹구참(熊丘站)· 오목진(吾木津)· 신갈과지(新架坡知)· 나난(羅暖)· 회동(灰洞)고개· 신대신수(申大信水)· 천평(天坪)· 풍파(豊坡)· 어윤강(魚潤江)· 양영보(梁永堡)· 아오지(阿吾地)'이다.

그리고 박권의 경우에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의 경로도 기록하여 '6월 4일 안원보(安原堡)를 시작으로 '구건원(舊乾元) - 북행영(北行營) - 부계(涪溪) - 회령부(會寧府) - 고평산(古豊山) - 무산령(茂山峯) - 수성참(輸城站) - 경성(鏡城) - 영강참(永康站) - 어랑포(漁郎浦) - 무계(武溪) - 명창(明倉) - 명천부(明川府) - 천덕(泉德) - 문암(門岩) - 아간창(阿澗倉) - 임명창(臨溟倉) - 성진(城津) - 마천령(摩天嶺) - 단천(端川) - 마운령(磨雲嶺) - 이성(利城) - 거산참(居山站) - 북청(北靑) - 평포(平浦) - 홍원(洪原) - 함관령(咸關嶺) - 덕산참(德山站) - 함흥(咸興) - 정평(定平) - 초원(草原) - 영흥부(永興府) - 고원(高原) - 문천(文川) - 덕원(德源) - 학포(鶴浦) - 흡곡(歙谷) - 통천(通川) - 금강산(金剛山) - 신원(新院) - 통구참(通溝站) - 창도참(昌道站) - 금성(金城) - 김화(金化) - 풍전(豊田) - 양문(梁文)'까지의 기행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박권의 귀환로에서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온다는 점이 인상 깊다. 그리고 박권이 백두산 가는 길과 귀환로에서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은 '북청(北靑)· 평포(平浦)· 홍원(洪原)· 함관령(咸關嶺)· 덕산참(德山站)· 함흥(咸興)· 정평(定平)· 초원(草原)· 영흥부(永興府)· 고원(高原)· 문천(文川)· 덕원(德源)· 창도참(昌道站)· 금성(金城)· 김화(金化)'이다.

또한 이들의 기행로를 살펴보면, 신경준(申景濬)의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 중 경흥제2로(慶興第二路)의 경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고(道路考)』는 팔도를 「육대로(六大路)」로 구분하여 전국의 모든 군현을 육대로(六大路)에 포함시켜 나누고 있다. 「육대로(六大路)」는 의주제1로(義州第一路), 경흥제2로(慶興第二路), 평해제3로(平海第三路), 동래제4로(東萊第四路), 제주제5로(濟州第五路), 강화제6로(江華第六路)로 <표-14>와 같다.<sup>87)</sup>

<표-14>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 경로

대로 번호	명칭	구간	거리(리)
1	京城西北抵義州路第一	京城~義州~鴨綠江	1,080
2	京城東北抵慶興路第二	京城~慶興~西水羅堡	2,504
3	京城東抵平海路第三	京城~平海	872
4	京城東南抵東萊路第四	京城~東萊~釜山鎮	937
5	京城西南抵濟州路第五	京城~海南~館頭梁~濟州	987
6	京城西抵江華路第六	京城~江華府	120

\* 출처 : 류명환, 2005, 旅菴 申景濬의 『道路考』 연구 - 「六大路」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p.31.

「육대로(六大路)」 중에서 ‘경성(京城)에서 김화(金化) - 철령(鐵嶺) - 안변(安邊) - 영흥(永興) - 함흥(咸興) - 북청(北靑) - 단천(端川) - 길주(吉州) - 경성(鏡城) - 부령(富寧) - 무산(茂山) - 회령(會寧) - 종성(鍾城) - 온성(穩城) - 경원(慶源) - 경흥(慶興)을 거쳐 서수라보(西水羅堡)’로 연결되는 경흥제2로(慶興第二路)에는 김지남과 박권의 기행로에서 거쳐 가는 지점들이 포함된다(표-15).

87) 류명환, 2005, 旅菴 申景濬의 『道路考』 연구 - 「六大路」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표-15> 경흥제2로(慶興第二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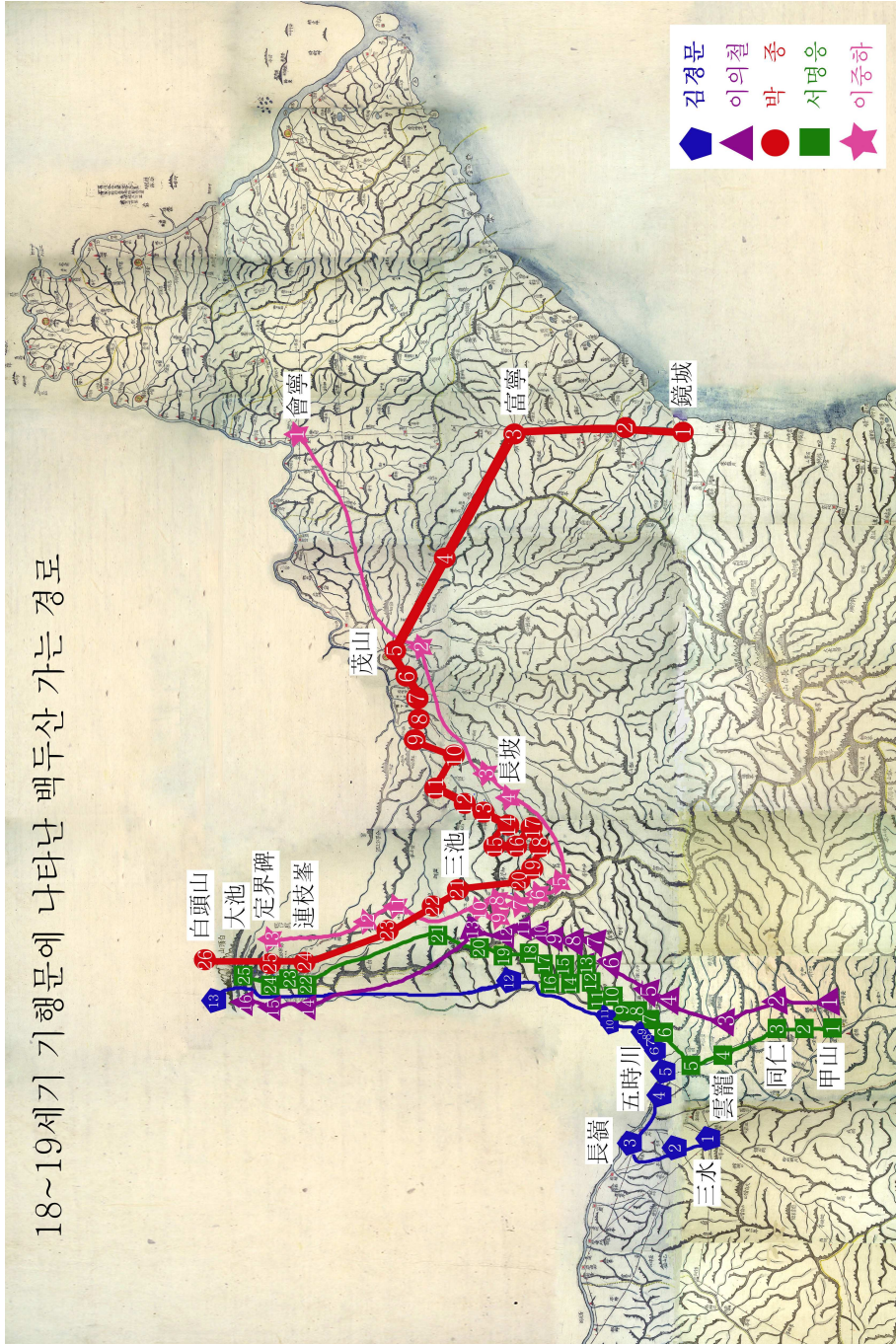
경성(京城) - 수유리점(水踰里店) - 누원(樓院) - 서오랑점(西五郎店) - 축석령(祝石嶺) - 송우점(松隅店) - 과발막(擺撥幕) - 장거리(場巨里) - 만세교(萬歲橋) - 양문역(梁文驛) - 풍전역(豊田驛) - 가로개령(可老介嶺) - 장림천(長林川) - 김화(金化) - 금성(金城) - 장도역(昌道驛) - 재오현(才五峴) - 송색강(松色江) - 신안역(新安驛) - 회양(淮陽) - 철령(鐵嶺) - 고산역(高山驛) - 용지원(龍池阮) - 남산역(南山驛) - 안변(安邊) - 원산촌(圓山村) - 덕원(德源) - 문천(文川) - 고원(高原) - 영흥(永興) - 금과원(金坡阮) - 초원역(草原驛) - 고성현(高城峴) - 정평(定平) - 봉대역(蓬臺驛) - 함흥(咸興) - 덕산역(德山驛) - 임동원(林東阮) - 함관령(咸關嶺) - 함원역(咸原驛) - 홍원(洪原) - 평포(平浦) - 쌍가령(雙加嶺) - 북청(北靑) - 장모로점(長毛老店) - 거산역(居山驛) - 시중대(侍中臺) - 다보동점(多寶洞店) - 이성(利城) - 곡구역(谷口驛) - 마운령(磨雲嶺) - 단천(端川) - 마곡역(磨谷嶺) - 마천령(摩天嶺) - 성진진(城津鎭) - 임명역(臨溟驛) - 길주(吉州) - 고참(古站) - 재덕보(在德堡) - 명천(明川) - 귀문령(鬼門嶺) - 주촌역(朱村驛) - 영강역(永康驛) - 경성(鏡城) - 수성역(輸城驛) - 부령(富寧) - 폐무산보(廢茂山堡) - 마전원(麻田阮) - 무산(茂山) - 양영만동보(梁永萬洞堡) - 풍산진(豊山鎭) - 불하진(曳下鎭) - 회령(會寧) - 고령진(高嶺鎭) - 방원보(防垣堡) - 종성(鍾城) - 동관진(潼關鎭) - 영달보(永達堡) - 유원진(柔遠鎭) - 온성(穩城) - 미전진(美錢鎭) - 황척과보(黃拓坡堡) - 훈술진(訓戍鎭) - 경원(慶源) - 안원보(安原堡) - 건원보(乾原堡) - 아산보(阿山堡) - 아오지보(阿吾地堡) - 무이보(撫夷堡) - 경흥(慶興) - 조산보(造山堡) - 서수라보(西水羅堡)
---

주 : 1) 「류명환, 2005, 전개논문, p.33.」의 표를 재구성함.  
 2) 음영색 표시 지명은 박권과 김지남의 기행로와 일치하는 지점이다.  
 출처 : 류명환, 2005, 전개논문, p.33.

이처럼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에 백두산 가는 경로에서 북청(北靑)까지의 경로는 경흥제2로(慶興第二路)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북청(北靑) 이후의 경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귀환할 때의 경로는 경흥제2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웅·이중하의 기행로를 함께 《대동여지도》에 복원하면 <그림-11>, <그림-12>와 같다.

18~19세기 기행문에 나타난 백두산 가는 경로



<그림-11>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증하의 백두산 가는 경로

<표-16> 김경문 · 이의철 · 박종 · 서명웅 · 이중하의 백두산 가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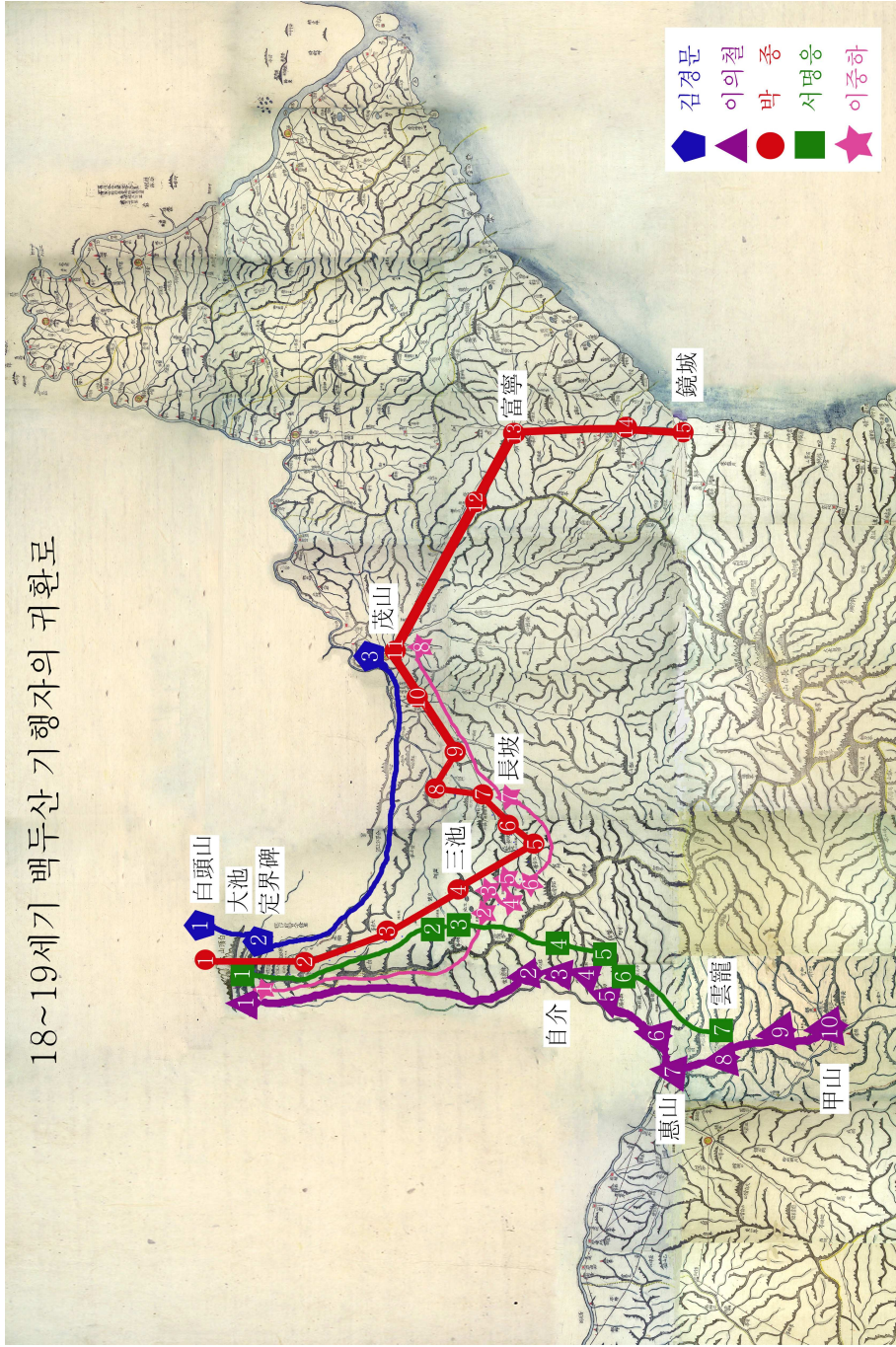
이름	이동 기간	가는 경로
김 경 문	1712년 4월 29일~1712년 5월 11일 (12일)	1 삼수(三水) - 2 구가진(舊茄鎭) - 3 장령(長嶺) - 4 허천강(虛川江) - 5 혜산진(惠山鎭) - 6 오시천(五時川) - 7 백산(柏山) - 8 백덕(柏德) - 9 곤장(昆長) - 10 화피덕(樺皮德) - 11 검천(劍川) - 12 한덕립지당(韓德立支當) - 13 백두산 정상
이 의 철	1751년 5월 24일~1751년 5월 28일 (5일)	1 갑산부(甲山府) - 2 동인령(同仁嶺) - 3 운총진(雲籠鎭) - 4 오시천(吾是川) - 5 백덕령(柏德嶺) - 6 서소라령(西小羅嶺:西水羅德) - 7 검천(劍川) - 8 심포(深浦) - 9 자개령(自介嶺) - 10 임어수(林魚水) - 11 허항령(虛項嶺) - 12 삼지(三池) - 13 천회참(泉會站) - 14 연지봉(臙脂峰) - 15 정계비(定界碑) - 16 백두산 천지(天池)
박 종	1764년 5월 14일~1764년 5월 23일 (10일)	1 경성(鏡城) - 2 수창(輸倉) - 3 부령(富寧) - 4 차유령(車踰峯) 고개 - 5 무산(茂山) - 6 산양암(山羊巖) - 7 남하창(南下倉) - 8 박하천(博下泉) - 9 임강대(臨江臺) - 10 삼산(三山) - 11 풍파(豐坡) - 12 소홍단수(小紅丹水) - 13 석류계덕(石留憩德) - 14 장파(長坡) - 15 녹운동산(綠雲東山) - 16 대홍단수(大紅丹水) - 17 작봉(鵲峯) - 18 반교(半橋) - 19 삼태봉(三台峯) - 20 귀룡소(鬼隴所) - 21 삼지(三池) - 22 천수동(泉水洞) - 23 포석동(浦石洞) - 24 연지봉(臙脂峰) - 25 정계비(定界碑) - 26 백두산 정상
서 명 웅	1766년 6월 10일~1766년 6월 14일 (5일)	1 갑산(甲山) - 2 삼봉(杉峯) - 3 동인진(同仁鎭) - 4 운총(雲籠) - 5 은사문령(銀沙門嶺) - 6 오시천(五時川) - 7 보다산(寶多山) - 8 나항포(羅巷浦) - 9 신대신천(申大新川) - 10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11 검천(劍川) - 12 간산봉(艮山峰) - 13 곤장평(昆長坪) - 14 심포(深浦) - 15 구현(狗峴) - 16 자포(滋浦) - 17 관막(板幕) - 18 임어수(林魚水) - 19 허항령(虛項嶺) - 20 삼지연(三池淵) - 21 천수(泉水) - 22 연지봉(臙脂峰) - 23 백산(白山) - 24 정계비(定界碑) - 25 백두산 천지(天池)
이 중 하	1885년 10월 6일~1885년 10월 19일 (14일)	1 회령(會寧) - 2 무산(茂山) - 3 삼하강구(三下江口) - 4 장파(長坡) - 5 수서(水西) - 6 직동(直洞) - 7 장산령(長山嶺) - 8 가적봉(加隴峯) - 9 절과총수(折把總水) - 10 삼포(杉浦) - 11 이석포(裡石浦) - 12 대각봉(大角峯) - 13 정계비(定界碑)

주 : 1) 지명 앞의 숫자는 <그림-11>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2) 이동소요 기간은 출발일 제외.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18~19세기 백두산 기행자의 귀환로



<그림-12>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증하의 귀환로

<표-17> 김경문 · 이의철 · 박종 · 서명응 · 이중하의 귀환로

이름	이동 기간	귀 환 로
김 경 문	1712년 5월 12일 (1일)	1 백두산 정상 - 2 정계비(세움) - 3 무산(茂山)
이 의 철	1751년 5월 28일~1751년 6월 3일 (4일)	1 백두산 천지(大池) - 2 입어수(林魚水) - 3 자개령(自介嶺) - 4 심포(深浦) - 5 검천(劍川) - 6 오시천(吾是川) - 7 혜산진(惠山鎭) - 8 운종진(雲籠鎭) - 9 동인진(同仁鎭) - 10 갑산(甲山)
박 종	1764년 5월 23일~1764년 6월 2일 (8일)	1 백두산 정상 - 2 연지방(臙脂峰) - 3 포석동(浦石洞) - 4 삼지연(三池淵) - 5 반교(半橋) - 6 장파(長坡) - 7 소홍단수(小紅丹水) - 8 풍파(豐坡) - 9 삼산(三山) - 10 하창(下倉) - 11 무산(茂山) - 12 폐무산(廢茂山) - 13 부령(富寧) - 14 수참(輸站) - 15 경성(鏡城)
서 명 응	1766년 6월 14일~1766년 6월 16일 (2일)	1 백두산 천지(大池) - 2 천수(泉水) - 3 삼지(三池) - 4 자포(自浦) - 5 검천(劍川) - 6 서수라덕령(西水羅德嶺) - 7 운종(雲籠)
이 중 하	1885년 10월 19일~1885년 10월 27일 (8일)	1 정계비(定界碑) - 2 가차을봉(可次乙峯) - 3 수봉(竪峯) - 4 신무충(申武忠) - 5 가을척봉(加乙隴峯) - 6 직동(直洞) - 7 장파(長坡) - 8 무산부(茂山府)

주 : 1) 지명 앞의 숫자는 <그림-12>에 복원한 지점을 나타낸다.

2) 이동소요 기간은 출발일 제외.

자료 : 기행기를 분석해 필자가 작성.

고지도에 복원한 김경문 · 이의철 · 박종 · 서명응 · 이중하의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는 기행로를 살펴보자. 이들은 모두 백두산을 오른다. 김경문과 박종의 경우 ‘백두산 정상’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이의철과 서명응의 경우 ‘백두산 천지’ 그리고 이중하의 경우 ‘정계비’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경문의 경우 출발하여 백두산에 이르는 기간은 1712년 4월 29일부터 1712년 5월 11일까지 총 12일, 이의철의 경우 1751년 5월 24일부터 1751년 5월 28일까지 총 5일, 박종의 경우 1764년 5월 14일부터 1764년 5월 23일까지 총 10일, 서명응의 경우 1766년 6월 10일부터 1766년 6월 14일까지 총 5일, 이중하는 1885년 10월 6일부터 1885년 10월 19일까지 총 14일이 걸려 백두산에 도착한다.

출발 지점을 살펴보면 김경문·이의철·서명응은 함경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서 출발하며, 박종·이중하는 함경도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에서 출발한다.

김경문은 삼수(三水)에서 출발하는데, 이의철과 서명응의 경로와 동일하게 지나가는 지점은 ‘오시천(吾是川)·검천(劍川)’이다. 또 ‘백덕(柏德)’의 경우 이의철과 동일하게 지난다. 그 외에는 이의철·서명응과 서로 다른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의철과 서명응은 출발지점이 갑산(甲山)으로 같으며, 기행 날짜는 다르지만 기행기간은 갑산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총 5일 걸리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나가는 지점의 지명은 ‘동인령(同仁嶺)·운총진(雲籠鎭)·오시천(吾是川)·서소라령(西小羅嶺:西水羅德)·검천(劍川)·심포(深浦)·임어수(林魚水)·허항령(虛項嶺)·삼지(三池)·연지봉(臙脂峰)·백두산정계비(定界碑)·백두산 천지(大池)’이다.

박종과 이중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박종은 경성(鏡城)에서 출발하고 이중하는 회령(會寧)에서 출발한다. 이 둘이 동일하게 지나가는 지점은 ‘무산(茂山)·장파(長坡)·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이다.

마지막으로 김경문·이의철·서명응·박종·이중하의 귀환로를 살펴보자. 김경문의 경우 1712년 5월 12일 하루에 걸쳐 백두산에서 무산(茂山)에 도착한다. 출발은 삼수(三水)에서 했지만 무산(茂山)에서 모든 경로를 마치므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다르다.

이의철은 1751년 5월 28일부터 1751년 6월 3일까지 총 4일간 백두산으로 갈 때 거쳤던 지점을 동일하게 거쳐서 돌아온다. 그러나 ‘혜산진(惠山鎭)’은 돌아오는 경로에만 포함되어 있다.

서명응은 1766년 6월 14일부터 1766년 6월 16일까지 총 2일간에 걸쳐 돌아온다. 서명응도 백두산 갈 때의 경로와 동일한 지점을 지나서 돌아오는데, 출발은 갑산(甲山)에서 했으나 운총(雲籠)까지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다.

이의철과 서명응의 경우, 백두산으로 갈 때의 기록에는 12곳의 동일한 지점을 지나서 갔지만, 귀환로 기록에서 동일하게 거친 지점은 ‘삼지(三池)·검천(劍川)·운총(雲籠)’으로 3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들이 돌아올 때에는 거의 동일한 지점을 거쳐서 돌아오므로 기록을 간단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출발지점이 함경도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이었던 박종과 이중하의 귀환로를 살펴보자.

박종의 경우 1764년 5월 23일부터 1764년 6월 2일까지 총 8일에 걸쳐 백두산에서 출발지점이었던 경성(鏡城)으로 돌아온다. 박종 역시 갈 때와 동일한 지점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폐무산(廢茂山)’을 거친다는 점이 다르다.

이중하의 경우 1885년 10월 19일부터 1885년 10월 27일까지 총 8일간의 기간이 걸려 무산(茂山)으로 돌아온다. 백두산 가는 길과 동일하게 거친 지점은 ‘가을척봉(加乙隴峯)·직동(直洞)·장파(長坡)·무산부(茂山府)’이며, 출발은 회령(會寧)에서 했으나 무산(茂山)에 도착한 것으로 일기를 끝마친다.

박종과 이중하는 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에서 ‘무산(茂山)·장파(長坡)·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의 3곳을 동일하게 지났는데 귀환로에서도 역시 그 지점들을 동일하게 지나며, 그 외의 경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18~19세기에 쓰여진 백두산 기행기인 김지남의 「북정록(北征錄)」, 박권의 「북정일기(北征日記)」, 홍세대의 「백두산기(白頭山記)」, 이의철의 「백두산기(白頭山記)」, 박종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서명응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 이중하의 「백두산일기(白頭山日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위의 7편의 백두산 기행기를 통해서 기행기를 남긴 저자들의 특성과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백두산을 기행하게 된 이유와 백두산 및 경로 상의 경관이나 통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각각의 백두산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 양식과 기행로를 분석하고 기행로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복원을 위해 고지도 상에 기행로를 복원하며, 복원된 기행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은 고대부터 우리 민족의 조종산(祖宗山)이자 성산으로 여겨지며 신성시되어 왔다. 백두산에 대한 이러한 외경심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지속되었으며, 1712년(숙종 38) 청나라와 국경문제가 제기되고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국경분쟁의 초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18세기 이후에 백두산 기행기가 주로 쓰여지며, 또한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성지인 만큼 직접 답사하고자 하는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백두산을 기행하고 기행기를 남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백두산 기행기는 그리 많지 않은데, 함경도의 험준한 산세와 추운 날씨로 인해 그러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백두산 기행기 속의 기록에서 저자들의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모두 백두산에 대한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에게 백두산은 평생 동안 꼭 한번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명의 백두산 기행자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도중 거쳐 가는 곳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자연경관에 대한 기록은 주로 고개·하천·산과 산맥 등에 대한 기록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입지·방어 등과 같은 인문경관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있었다.

셋째, 각각의 기행기에 나타난 기행 양식을 백두산 기행 목적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백두산 기행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때문에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유람을 목적으로 백두산을 오른 경우이다.

기행 목적에 따라 기행 양식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박권·김경문·이중하의 경우와 단순 유람으로 백두산을 기행한 이의철·박종·서명응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백두산 기행기에서 동행인·이동수단·백두산으로 가는 경로와 귀환로에서의 숙박 지점·지역관원의 영접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을 통해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이들과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이들의 기행 양식을 비교한 결과,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경우의 동행인이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무래도 업무상 이동 시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여야 했으며 따라서 말과 가마의 수도 많아져 그 만큼 마부나 짐꾼 등 아랫사람들도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두산 경계를 논하기 위해 함께 백두산을 올라간 청나라인들의 수 까지 더해지므로 동행한 인원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행 시 이용한 이동 수단은 두 경우 모두 말이나 가마를 이용하였고, 필요시 도보로 이동하였으므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숙박 지점에 대한 기록은 두 경우 모두 숙박한 곳의 지명 정도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기행한 경우와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기록을 통해 모든 기행자가 임시숙소·천막·장막·객사·객관·움막·유계소 등에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노숙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관원의 영접’의 규모와 정도에 있어서는 업무상 기행한 경우가 단순 유람의 목적으로 기행한 경우에 비해 매우 컸다.

넷째, 기행기 속에 나타난 기행로를 고지도에 복원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 같은 경로로 함께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둘 다 백두산에는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김지남의 경우 1712년 6월 3일로 기록을 마치고 있었으나 박권의 경우 그 이후 1712년 7월 13일까지의 기록을 더 하고 있어 귀환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사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지명을 상대방이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이들의 기행로는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 체계인 「육대로(六大路)」 중 함경도로 연결되는 제2대로인 경흥제2로(慶興第二路)의 경로와 일치하였다. 경흥제2로는 ‘경성(京城) - 김화(金化) - 철령(鐵嶺) - 안변(安邊) - 영흥(永興) - 함흥(咸興) - 북청(北靑) - 단천(端川) - 길주(吉州) - 경성(鏡城) - 부령(富寧) - 무산(茂山) - 회령(會寧) - 종성(鍾城) - 온성(穩城) - 경원(慶源) - 경흥(慶興) - 서수라보(西水羅堡)’로 연결된다. 이 경로에는 김지남과 박권의 기행로에서 거쳐 가는 지점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업무상 백두산을 기행한 김지남과 박권의 경우에 백두산 가는 경로에서 북청(北靑)까지의 경로는 경흥제2로(慶興第二路)와 일치한다. 그러나 북청(北靑) 이후의 경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백두산으로 가야했기 때문이다. 귀환 할 때의 경로는 경흥제2로와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한다.

기행기에 나타난 이동 기간은 김지남의 경우 67일간이며, 박권은 107일 동

안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김경문·이의철·박종·서명응·이중하의 경우에는 모두 백두산에 오른다. 이들의 총 이동 기간을 살펴보면 김경문이 13일, 이의철이 9일, 박종이 18일, 서명응이 7일, 이중하는 22일이 걸렸다.

김경문·이의철·서명응은 함경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서 출발하며, 박종·이중하는 함경도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김경문·이의철·서명응의 경우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이 몇 곳이 있으며, 특히 출발지점이 갑산(甲山)으로 동일한 이의철과 서명응의 경우 기행 날짜는 다르지만 기행기간은 갑산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총 5일 걸리는 것으로 동일하며 12곳의 지점을 동일하게 지난다.

역시 함경도 경성(鏡城)과 회령(會寧)에서 출발하는 박종과 이중하의 경우 동일하게 지나는 곳이 있으나 ‘무산(茂山)·장파(長坡)·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의 3곳에 불과하다.

이들의 귀환로를 살펴보면, 김지남의 경우 돌아올 때의 기록이 없어 백두산으로 갈 때의 경로와 비교 할 수 없으며, 박권의 귀환로는 갈 때와 동일하게 지나는 지점이 몇 곳 있지만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돌아올 때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것이 특이할만하다.

이의철과 박종의 경우 갈 때와 같은 경로로 돌아옴을 알 수 있고, 서명응과 이중하의 경우에는 같은 경로로 돌아왔으나 도착지점은 달랐다.

그러나 홍세태의 「백두산기(白頭山記)」에 나타난 김경문의 경로를 살펴보면 출발지점은 삼수(三水)였으나 도착지점은 무산(茂山)으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기행기에서 가는 도중에 기록된 지점에 비해 돌아올 때 거쳐 온 지점은 적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돌아오는 일정의 기록은 비교적 간단히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두산 기행기는 문학작품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여행 동기, 기행 양식, 여

행 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경관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지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두산 기행기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최근 들어 ‘문학지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소개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김영기, 2000, 백두산 문학의 영토, 지문사.  
김지남,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서울, 혜안.  
심혜숙, 2004, 백두산, 대원사.  
양태진, 1989, 韓國 邊境史 研究, 서울, 법경출판사.

### 2. 논문

-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朝) 청(淸) 정계와(定界)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제79권, 진단학회, pp.135~165.  
강석화, 1996,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 ;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제96권, 한국사연구회, pp.121~134.  
김명희, 1996, “歸菴 朴權의 「西征別曲」과 「北征日記」考究”,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pp.319~366.  
김영표, 2005, “다시 찾은 백두大山줄기”, 산서, 제16호, 한국산서회, pp.19~48.  
류명환, 2005, 旅菴 申景濬의 『道路考』 연구 - 「六大路」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박 경, 2005, “한반도의 산줄기와 지질에 관하여”, 산서, 제16호, 한국산서회, pp.102~106.  
박영민, 2004, 유산기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호, 고려대학교

- 민족문화연구소, pp.73~98.
-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인식체계”, 韓國史市民講座, 제14집, 一潮閣, pp.70~97.
- 양보경, 1996, “조선시대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 ;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pp.300~322.
-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제83호, 진단학회, pp.85~106.
- 양보경, 2001, “백두대간의 의의와 시적 상상력 ; 산경표와 백두대간”, 시안, 제13호, 시안사, pp.16~31.
-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산지관과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pp.19~62.
-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산지관과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pp.19~62.
- 양보경, 2004, “과학과 예술의 만남 한국의 옛 지도 읽기 - 조선후기 조선전도의 발달과 《대동여지도》”, 측량 제76호, 대한측량협회, pp.46~52.
- 유용환, 2002, 민족상징 백두산의 역사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치균, 1996, “「白頭山遊錄」 연구”,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pp.405~426.
- 정치영, 2003,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 15권 제3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17~34.
- 정치영, 2003, “ ‘遊山記’를 통한 조선시대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83~96.
- 정치영,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pp.54~70.
- 진재교, 2000, “한국문학과 한문학 ; 18세기 백두산과 그 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26권, 한국한문학회, pp.115~154.

진태하, 1990, “民族의 聖山으로서 白頭山考”, 人文科學研究論叢, 제7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3~35.

### 3.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com](http://www.encykorea.com))

## ABSTRACT

### The 18~19th Centuries Baekdusan Itineraries

Kim, Min-ju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o-Kyung)

Mountains cover 70% of Korea's terrain, and over the centuries, the mountain has become a prominent fixture in the lives and lore of the people who dwell there. In particular, Baekdusan ('White head mountain') has traditionally carried great significance for Koreans. The underlying perception persists that Baekdusan is the original ancestor of the Korean land, and honor was historically paid to it in the form of worship insacred rites and rituals. Individual travel accounts of Baekdusan are relatively few in number compared to other travel sketches, and the majority were written mostly after the 18th century. A traveler's journal uniquely creates both a literary work and a realistic record of the routes and places of sojourn.

This paper reviews known travel accounts to the Baedusan mountain written in the 18~19th centuries : Kim Ji-nam's 「Bukjeongnok ('Record of the Journey North)」, Park Gwon's 「Bukjeong ilgi (Daily Diary of the Journey North)」, Hong Se-tae's 「Baekdusangi (Traveler's Journal of

Baekdusan)」, Yi Ui-cheol's 「Baekdusangi (Traveler's Journal of Baekdusan)」, Park Jong's 「Baekdusan yurok (A Record of an Excursion to Baekdusan mountain)」, Seo Myeong-eung's 「Yubaekdusangi (An Excursion to Baekdusan)」 and Yi Jung-ha's 「Baekdusan ilgi (A Daily Diary of the Baekdusan Trip)」. Drawn from the pages of the above writings, studies were done of the authors, the travel conditions of the times, the purpose of the trips, and the authors' understanding of Baekdusan. In addition, comparative studies were done on the types of tours undertaken with the restoration of tour courses on old maps.

There were many findings.

First, the typical traveler's journal to Baekdusan was mostly written after the 18th century when Baekdusan emerged a focal point of borderline disputes between Qing China and Korea, a question first raised in the late 17th century.

Second, all the authors of Baekdusan travel journals examined here believe that Baekdusan is a sacred mountain, the best mountain of Korea, and a mountain anyone would want to climb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In addition, all 7 authors wrote about the landscape and human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places they visited on their way to Baekdusan.

Third, trips to Baekdusan were of two kinds: either on business regarding the border dispute between Qing China and Korea, or simply for sightseeing. Depending on which purpose, details of who accompanied the authors and how they were received by local officials varied but means of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points were the same.

Fourth, comparisons of trip routes on old maps reveal that Kim Ji-nam and Park Gweon took the same course, while both failed to summit

Baekdusan; Kim Gyeong-mun, Yi Ui-cheol, Park Jong, Seo Myeong-eung, Yi Jung-ha reached the top of Baekdusan; Yi Ui-cheol and Park Jong took the same road for the return trip but branched off to different destinations.

While the Baekdusan itinerary are deemed literary works, they are also very important references in historical geography revealing, as they inform us, of the writer's intentions to set out on such a trip, recounting their experiences, noting regional situations of the times, commenting on the passing landscape, human geographical features and other aspects of the journey.

Studies on Baekdusan travel journals are sparse, though this is expected to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literary geography', a relatively new area of study, which is already encouraging various researches under way. Interest in this subject will expand proportionately.